후원회소식

통권 165호 | 발행일 2005.7.11 | 발행인 권오헌 | 발행처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6.15 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선언 채택

·목·차· 우리의 주장 권오헌 • 2 / 출소장기수를 찾아서 ·이종린선 생님을 뵙고 고현희 • 6 / 감옥에서 온 편지 강성철 • 9 / 이런회원 ·박철민 회원을 찾아서 김혜정 • 10 /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11 / 6.15 공동선언 발표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참가기 김호현 • 12 / 통일 글짓기 · 통일의 빗방울 되어 김서현 • 16 / 회원마당 · 오감시롱 기행기 여혜정 • 18 / 일립니다 • 21 / 회원마당 · 산행기 이현근 • 22 / 회원마당 · 제3회 6.15 통일마라톤대회 참가기 신현부 • 24 / 낙성대 이야기 • 25 / 시사만평 • 26 /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 28 / 이런 일이있었어요 • 30 / 재정보고 • 39 / 회비를 내주신 분들 • 40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151-812 서울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전화 : (02)874-4063 전송: (02)888-4470 홈페이지: www.yangsimsu.or.kr 이-메일: yangsimsu@hanmail.net

전쟁광신자가 떠벌이는 가당찮은 민주주의와 인권 타령

권오헌 | 회장

"……세계지배를 꾀한 미국의 거짓된 민주주의 확산음모가 그칠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해 9월 이른바 '2004-북인권법안'(North Korea Human Right Act of 2004)을 제정한 바 있는 미국이 이번엔 또다시 '민주주의 증진법'(Advance Democracy Act of 2005)을 만들려고 야단법석이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미 상,하 양원에 동시 상정되었으며 지난 6월 미 하원은 국제관계위원회를 통과, 본 회의에 상정했고 7월중 통과시킬 것이며 상원도 뒤따라 법제화 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워싱턴 소식통을 인용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른바 민주주의 증진법은 전 세계 모든 국가를 · 완전민주국가 · 부분적 민주국가 · 비민주적국가로 구분해 부분 또는 비민주국가들의 민주화를 촉진시키겠다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위해 전 세계 미국공관에 '민주주의 증진 담당관'을 신설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비민주국가내의 민주화운동단체들에 대해 2006, 2007년에 총 2억5천만 달러(약 2500억원)을지원토록하고 있다. 이 법안의 입법 취지로 보아 '폭정의 전초기지'로 지목했던 이북(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대상권에 들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실제로 이 법안을 발의한존 매케인 의원(공화)은 '북한 같은 나라들이 (이 법의)노력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이 북인권법처럼 이북만을 특정해 제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북인권법과 함께 특히 이북을 겨냥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소산이며 그 궁극적 목적이 정권붕괴에 있다는 데서 민족적 분노를 삼킬 수 없다. 부시를 비롯한 미행정부 우두머리들이 잇달아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테러범', '폭군', '무책임한 지도자' 등으로 망발을 하면서 사실상 체제전복을 서슴지 않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법안을 이북에 적용시킨다면 북인권법처럼 반북단체들에게 2006년과 2007년에 2500억원 가운데 상당 부분이 투입되고, 이는 정권붕괴공작을 자행케 하려는 또 다른 국가테러행패가 될 것이다.

오늘 남과 북, 해외 우리민족은 그어느 때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겠다는 결의에 차있다. 그것은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민간부문뿐아니라 당국대표단까지 함께하며 민족자주, 반전평화, 통일애국의 3대 민족공조를 비롯하여 5개항의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한데서도 드러났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당국사이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동영 대통령 특사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면담과 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 현안에 대한 김 국방위원장의 시원시원한 해법에 겨레 모두가 고무받기도 했다.

또한 대축전에 이어 남북장관급회담을 열어 12개항에 대한 합의 보도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남과 북은 이제 더 이상 반목, 대결이 아닌 본격적인 화해협력 단계로 들어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어떠한 외세의 간섭책동에서도 사상과 이념, 제도와 정견의 차이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을 이루어 내고 있다는 데

서 자주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기에 충분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데 재를 뿌리고 초를 치는 자들이 있었다. 바로 미국이었다. 인류평화의 적이며 악의 근원으로서 세계지배의 패권주의에 집착하고 있는 제국주의 침략자 미국이었다. 인류가 오랫동안 추구해 온 자유와 평등, 정의 평화와 인권 등 보편가치를 일방적으로 변형시켜 미국식 자유와 가치관, 민주주의와 인권개념을 고집하며 수많은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나라를 전복시켜 미국의 추종세력으로 편입시키면서 어떠한 불량국가라도 미국편에 서면 우방으로 패거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미국이 지난 한세기동안 보여준 본 모습이었다.

일제의 식민통치에 맞서 민족해방전쟁을 벌였던 조선을 마치 패전국을 대하듯 제멋대로 남북으로 갈라놓고 동족끼리 싸우게 했으며 정전협정 52년이 지났어도 평화협정은 고사하고 60년 강점을 넘어 영구 주둔음모를 꾸미고 있다. 바로 미군기지 확장과 재배치계획, 최첨단 대량 살상무기로의 110억 달러에 이르는 전력증강계획, 작전지휘통제권을 틀어쥔 채전략적 유연성을 강요하며 동북아 지역군으로 성격변화시키면서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포위전략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은 이북에 대해서는 체제전복 등 적대정책으로 이남에 대해서는 정치, 경제, 군사 등 전반적인 지배체제와 주한미군의 영구주둔획책 등 우리민족의 존엄과 이익, 자주권과 생존권을 짓밟고 있다.

그래서 미국은 6.15 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곱지 않은 눈으로 보고 있었다. 남북사이의 화해, 협력, 그리고 자주통일 지향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주한미군의 영구강점전략에 배치되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문제 해결로 끝나지 않는다. 미사일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 인권, 마약 등 터무니없는 이유를 내세우면서 민주주의 확산이란 거짓 구실로 체제전복을 노리고 있기 때문이다.

부시는 대축전이 열리고 있는 바로 그 순간 탈북자 출신 조선일보기자 강철환씨를 백악관으로 불러 격려하면서 '한국은 왜 북한정권의 인권유린에 분노하지 않는가'며 미국식 잣대로 북의 인권문제를 헐뜯고 한 목소리를 내지 않는다며 남쪽의 대북화해협력정책을 비방했다.

부시는 강씨와의 면담장면과 대화내용을 전 세계 언론에 알려 대북적대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그리고 한미정상회담때는 보이지 않던 대북강경론자 딕 체니 부통령이 배석하고 있었다. 미국의 인권타령은 부시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6월14일(현지시간)에 있었던 미 상원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크리스토퍼 힐' 미국무성 동아태 담당차관보는 '미국은 북한인권문제에 침묵하지 않겠다' 고 했으며 16일 한미 6자회담 수석대표회담에서도 '미북관계가 얼마나 정상화될 것이냐는 인권 등 여러 요인들에 의해 좌우될 것' 이라 하여 조미관계의 정상화를 인권문제와 연계시킬 것을 분명히 했다. 또한 남북장관급회담이 열리고 있을 때 미국에서 이북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표적인 강경파인 '마이클 호로위츠' 허드슨 연구소 수석연구원

과 미들랜드 교회연합회의 '존 스파스니' 부회장 등 보수기독교계 인사들이 서울에 와 1주일동안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 김문수 의원 등을 만나는가 하면 한나라당의 국가발전전략연구회에서 '미국에서 바라보는 북한인권'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고 명동성당 기도회 등에서 국내 반북단체들과 함께 대북비방소동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은 부시행정부의 외교정책에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기독교 복음주의 세력으로 지난해 북인권법 제정에 압력을 가했던 집단이기도 하다.

미국의 민주주의 또는 인권트집은 최근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에서도 벌어졌다. 바로 이북에 의한 이남과 일본인 납치 억류를 규탄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것이다. 납치, 억류, 테러 등을 내세우면서 북핵문제 해결에서 북의 인권문제 제기와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잇단 침략전쟁에서 수많은 양민을 학살하고 '아부 그레이브' 관타나모 수용소 등 몸서리 칠 정도의 인권유린을 자행하고 있으며 세계에서 제일 많은 수감자와 학대를 하고 있는 등 제 앞도 가리지 못하는 인권침해의 왕초국가가 남의 일에 밤놔라 대추놔라 하는 따위 민주주의와 인권타령은 참으로 가당치도 않고 가소로울 뿐이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남북사이의 화해협력정책에 찬물을 붓고 있는 등 대북적대정책에서 비롯된 음흉한 모략 음모이다.

지난달 30일부터 이틀 동안(현지시간) 뉴욕에서는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주최로 6자회담 당사국 중요관리들과 전문가들이 함께하여 공식적인 북핵세미나가 열렸다. 언론들은

참석자들의 말을 빌려 '좋은 분위기에서 격의 없는 서로의 입장을 개진한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제4차 6자회담 재개가 임박했다는 낙관적 전망을 하면서도 구체적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음을 덧붙였다. 그러나 6자회담을 여는 것만이 문제의 모두는 아니다.

회담에 함께하는 모든 나라의 주권국가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자세가 있어야하고 폭정의 전초기지 따위 등 망발에 대해 사과해야 하며 회담에서 실질적인 진전과 최종목표에 합당한 건설적 제안과 의지가 있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김정일국방위원장이 말한 '조선반도에서의 비핵선언의 유효성'과 '미국이 조선을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것이 확고하다면 7월중에라도 나올 수 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시큰둥하고 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19일 중동순방중인 예루살렘에서 'CNN방송' 및 '폭스 뉴스'등과의 인터뷰에서 김 국방위원장의 말에 대해 '북한은 6자회담에 복귀하지 않기위한 구실일 뿐'이라고 망발을 했다. 다른 미국 관리도 '북한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하는 등 진정 이북이 6자회담에 나오기를 바라는 것인지 아닌지 의구심을 갖게 하고 있었다. 이보다 앞서 17일엔 미 국무부 '애덤 어럴리' 부대변인. 손 매코맥 대변인도 한결같이 '전제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해야한다'고 만 했으며 23일엔 스콧 매클렐런 백악관 대변인도 '북은 아무 조건 없이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날짜를 잡아야한다'고 상투적인 말만 되풀이 했다. 마크 민튼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28일 '미국이 더 이상 노력할 부분은 없다. 북은 지체 없이 회담에 복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같이 미국 관리들의

6자회담에 임하는 자세는 북이 조건 없이 나와 핵 프로그램을 폐기하는 것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국의 자세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았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8일 국회 21세기 동북아포럼 주최 조찬강연회에서 '미국의 본심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미국은 북한더러 6자회담에 나오라하면서 북한의 반응이 채 나오기도 전에 최고지도부에 있는 사람이 김 위원장을 지목해 공격적인 언사로 북을 자극하고 있다'며 미국을 맹렬히 공격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14일 미 상원의 북핵청문회에서 리처드 루거 상원위원장(공화)과 조지프 바이든 의원(민주당 간사)등이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해 '일관성이 없고 비효율적이거나 북한정권교체가 목표라는 인상을 주어 외교적 해결을 방해한다'고 비판했다. 홍콩의 대공보도 15일 '미국은 북핵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면서도 실질적인 조처를 취하지 않고 분위기가 다소 개선되더라도 해결하려기보다 인위적인 걸림돌을 만들어 내 평화적 협상의 기회를 무위로 돌려놨다'며 부시 행정부를 맹비난 했다. '대공보'가 말하는 미 행정부의 '임위적 걸림돌'은 주권국가임과 그에 따른 안전보장을 외면하는 것이고 '악의 축', '폭정의 전초기지' 등 이북과 그 지도부에 대한 적대정책이라할 수 있다.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핵선제공격위협 등 전쟁책동과 인권과 민주주의를 내세운 정권붕괴정책, 그리고 60년 동안 이어온 경제제재등이다.

대북압살정책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위에서 말한 경제제재이다. 부시는 지난달 29일 또다시 대통령 명령으로 대량살상무기(WMD)확산과 관련이 있다는 이유로 이북의 3개기업의 미국 안에 갖고 있는 자산에 대해 동결령을 내렸다. 이들 세 회사 뿐 아니라 이북과 이란, 시리아 등 세 나라10개 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모든 미국 내의 기업의 자산과 미국 내 기업 활동에 대해서도 적용케 했다. 그리고 세나라 10개 회사와 거래하고 있는 세계모든 나라의 기업에 대해서도 제재를 가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은 이제까지 미사일, 마약거래 등 혐의로 이북의 일부 기업에 대해 거래금지 등 제재조치를 취해오고 있었다. 6자회담이 재개되려하자 미국의 강경파들이 북의 6자회담 복귀를 막으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일부 언론들이 밝히고 있다.

이제까지 보아왔듯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은 바로 핵을 포함한 무장해제와 인권, 민주주의 확산을 빙자한 체제전복 그리고 경제 제재 등의 고립압살정책이었다. 이 모든 것들은 궁극적으로 핵선제공격 등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막아야한다. 이 땅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우리민족은 승자도 패자도 아닌 절멸일 뿐이다. 우리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통일하려는 6.15공동선언시대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아야한다. 이제까지의 안보개념은 과감하게 바꾸어야한다.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지키는 그리고 생존권과 번영을 위한 민족안보개념으로 바꾸어야한다. 제국주의와 군사패권주의 앞에 남북이 따로 없다. 민족의 자주권 없는 민주주의와 인권은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사상, 이념, 체제, 제도를 넘어 민족적 대단결로 제국주의 패권주의를 막아내야 할 것이다.

이 종린 선생님을 뵙고

고현희 | 회원

장마비가 오락가락하는 7월.

비를 맞은 축축한 성북동은 더욱 운치 넘치고 넉넉하다. 조금 언덕을 올라 도착한 곳은 '무무재'(無無齋) 없는 것이 없는 집. 좁지만 책으로 그리고 여러 소장품으로 가득 찬 무무재에는 정말 없는 게 없을 것같다. 무무재의 주인장이신 이 종린 선생님은 비가 오는 대도 집 앞에 나와 넉넉한 미소로 우리를 맞아 주신다.

젊어서는 치안법으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름만 바꾼 국가보안법으로 열 아홉차례나 사직당국에 끌려 다니며 이제 노인이 되신 이 종린 선생님은 현재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며 재판거부 중이다. 재판거부의 이유는 간명하다. '민족사적으로 이제는 우리 조국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치면 세계만방에 두려울 것이 없이 부강한 통일조국을 건설할 수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본인을 위헌성과 모순성이 내재한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법정에 세워 심판한다는 사실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두진술 중)

이 종린 선생님은 1923년 2월 11일 전북 전주 송천동(현재)에서 태어나셨다. 아주 유복한 집안의 3남 6녀, 9남매 중 여섯째로 태어나셨다. "열두 살 유년기까지는 아주 유복한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요즘 말하는 호화주택이라고 해야 할까? 정원 500여 평에 대문방 사랑방 곳간 공부방 등 30여 칸의 집을 흙 담으로 둘러싸고 있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정원사를 따로 들여 정원을 손질하게 했으니까." 선생님의 아버님은 세 아들을 위해 따로 집에 서당을 만들고 훈장을 두어 아들 삼형제를 가르치게 했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집안이 몰락해 선생님의 대식구는 그 큰 집을 내어주고 초가삼간으로 이사를 가야했다. 갑작스레 집안이 기우는 바람에 선생님은 고등교육을 포기해야 했지만, 대신 전주시내로의 이사는 영민하던 선생님에게 민족의식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전주시내 한복판 약 1Km 정도에 걸쳐 대전정통이란 거리가 있었는데, 그 거리 양쪽엔 일본일 상점들이 자리 잡고 있었죠. 그런데 거기서 파는 일본 제품이 다 좋거든. 일본 물건을 우리 민족에게 팔아 잘들 사는 것을 보면서 민족적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일본 순사와 형사가 집으로 들이닥쳐 아버님을 전주서로 연행해갔다. 폭탄을 만들어 경찰서를 폭파하려고 했다는 혐의였다. 며칠 후 아버님은 풀려났지만, 그 후로 선생님은 거리에서 순사만 보아도 솟구치는 반일감정을 주체할 수 없었다. 42년. 전쟁말기에 들어서자 일본은 학생이나 젊은이들을 모아 징용 보내는데 혈안이 된 시기였다. 당시 선생님은 스무 살 청년. 징용을 피할 수 없는 나이. 선생님의 아버님은 쌀 한 가마니를 일본 사람에게 주어 선생님을 도청 임시 서기로 들어가게 했다.

그러나 선생님은 징용을 피할 수는 없었다.

"전시체제니까 모두들 군인처럼 머리를 짧게 깎았

거든. 400명 도청직원 중에 유일하게 나만 머리를 짧게 깍지 않았어요. 여러번 지적을 받았지만 끝끝내 자르지 않았더니, 아마 그게 빌미가 되었던 모양입니다."

도청 직원 중 유일하게 일제 정권의 시책을 따르지 않으며 머리를 깍지 않았던 선생님은 유일하게 징용대상이 되어 끌려가게 되었다. 선생님에게 주어진 일은 대판에 있는 구축함 공장에서 구축함을 만드는 일이었다. 부산항에 도착해보니 전주에서 징용을 온 사람은 40명이었다. 그 인솔책임자는 하르노 타케오.

1944년 대판에 도착해 보니 전 공장인원 3만 명의 공장엔 이미 2500명의 징용자가 와 있었고, 선생님은 2차로 모집한 2500명의 징용자중 한 명이었다. 징용자들은 새로 지어진 숙소에서 생활을 했다. 그러나 선생님을 예사롭지 않게 본 하르노 타케오는 선생님에게 자기 집 2층 서재에서 생활할 것을 권했다.

하르노 타케오의 2층 서재.

그 곳에서 선생님은 완전히 새로운 세계를 발견하게 된다. "서재의 서적 전부가 마르크스, 레닌의 저서로 시작해 온통 사회과학 서적이었습니다. 그 때 그 책들을 탐독하며 또 다른 세계,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르노 타케오는 일본 내 3대 영화사 중 하나인 송죽의 간부이며 동시에 연극배우였다. 일본 공산당 대판시당 재정책임자이던 그는 전시체제하에서 구축함 공장의 연극단체를 책임지고 있었다. 선생님은 그의 사무실 옆에 책상을 두고 그의 업무를 보조했다. 선생님은 선생님이 발견한 세상의 얘기를 편지로 써 고향 지인들에게 보냈다. 그러나 그 편지들이 검열에 걸리면서 선생님은 경찰서에 연행되었다.

"헌병대위라는 놈이 불과 나보다 몇 살 위 인거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놈이 대뜸 나를 보고 하는 말이 '건방진 놈, 제국주의 · 사회주의 · 민족주의 · 민주주의 ' 라고 비아냥 거리더라구요. 그 때 그 놈에게 왜 정당성을 설파하지 못했는지. 젊은 사람끼리 한 번 논쟁을 할 수도 있었을텐데...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욕을 당했다는 울분이 가시지 않아 지금도 한이 됩니다."

선생님은 일본 중부 군관구 헌병사령부 유치장에 구속되었다.

1945년 8월 13일.

분위기가 뒤숭숭했다. 다음 날일 8월 14일. 내일 중대방송이 있을꺼란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8월 15일. 연병장에 도열한 헌병대 군인들은 웅웅거리기 만 하는 방송이 끝나기가 무섭게 운동장에 주저앉아 통곡하기 시작했다. 선생님은 담당 하사관으로부터 '너는 조선에 가게 되었다' 는 얘기를 들었다.

선생님은 그렇게 8.15를 맞았다. 더위와 땀으로 다 삭은 런닝셔츠를 걸친, 오랜 허기로 피골이 상접한 그러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불타는 24살 청년의 모습으로. 우여곡절을 겪으며 어렵게 도착한 고향. 징용갈 때 이미 홀몸이 아니던 아내는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다.

"내가 그 놈 앞에서 맹세를 했습니다. 너만큼은 남의 나라 예속 하에 살리지 않겠다, 내가 당한 이 민족적 쓰라림을 안겨주지 않겠다. 그런데 그 맹세가 이 시간까지 이루어지지 못해요. 참 비통한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은 고향에 돌아온 후 도청에 복귀해 도청에서 일을 했다.

그러나 48년 민주애국청년동맹사건이 빌미가 되어 선생님은 도청에서 파면되었다. 그 전에도 46년, 47년 두 번이나 이미 전주 경찰서에 예비 검속으로 연행된 바가 있다. 46년, 이승만 전대통령이 전주로 지역순시를 오기로 되어 있었다. 전 날 밤 죽마고우인 이 병일이 찾아왔다. " '이승만이가 단독정부를 수립하면 조국은 영영 분단이다. 우리 유철포를 구해 이승만을 저격하고 군산 앞바다에 배 한 척을 구해 놓아 중국으로 망명을 하자.' 고 제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당장 유철포를 구하지 못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한 것이 죽어도 한으로 남습니다."

50년 한국전쟁. 7월 20일 전주에 인민군이 들어왔다. 다음날 선생님은 도청에 나가보니 도청 세포는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김 재완 도 인민위원장은 선생님과 그 외 두 사람에게 신임장을 주며 평양아카데미 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오라고 했다. 이틀 반나절 걸려 대전정권 지도부에 도착해 간부에게 신임장을 보여 주었다. 신임장을 본 간부는 북상하지 말고 다시 남으로 복귀 할 것을 명령했다. 의아해하며 도로 내려와 도당학교에 들어가 강의를 듣다 미군이 들어온다는 소리를

듣고 해산해 운장산으로 들어가던 중 선생님은 말라리아에 걸리게 되었다.

"혼자 있으니 겁이 나더군요. 입산해 집단에 같이 있었다면..... 나약한 심정에 8Km로나 떨어진 누님 집으로 피신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데리러 와 큰 매부 과수원에 숨어있다 시내 집으로 내려와 있는데, 특무대에서 알고 집을 포위하고는 체포해 가려고 했습니다." 구사일생. 인연이 있던 박용상 전북일보 사장의 중재로 체포를 피할 수 있었고, 선생님은 특무대 지하에서 90일간 조사를 받고 석방되었다.

"죽을 고비를 넘겼으니 그 이후 삶은 덤으로 사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후 계속되는 연행과 구속. 그리고 복역. "며칠 전에는 부인이 이런 말을 하더군요. '당신 언제 한 번 옷 벗고 제대로 잔 적이 있나요?' 언제 잡으러 올지 몰라 항상 불안한 잠을 잤었지요."

60년 서울대학 민통련은 북에 남북학생교류를 제의했다. 민자통 상임위는 회의를 열어 남북학생회담 환영 및 촉진대회를 열기로 했다. 대회 장소로 효창운동장을 정하고 용산구청장을 찾아 갔으나 구청장은 일언지하에 안된다고 거절을 했다. 당시 배구협회 총무이사이던 선생님은 서울 본 운동장에 안면이 있는 사람을 통해 당일로 사용료를 국고에 입금하고 대회장소로 서울 본 운동장을 정했다.

5월 13일 새벽 임병기 선생이 붓글씨로 광목에 쓴 프래카드를 대회장에 붙이고 13명의 연사를 정했다. 선생님이 사회를 맞았다. 대회장엔 5만명의 시민이 모여 집회를 열었다.

5월 14일 대전대회를 열고 5월 16일 전주 대회를 앞두고 13명의 연사와 새벽에 전주에 도착해 보니 군사혁명이 났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선생님은 연사들과 과수원을 하는 누님 집에 들어라디오를 틀어보니 민자통 을지로 사무실에 오는 사람들은 이미 속속 구속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그 길로 선생님은 도피길에 올라야 했다.

그 후로도 연행과 구속.

89년 3월엔 범민족대회 실무회담 사건으로 구속되었고 같은 해 6월엔 같은 사건으로 연행되었고 그 해 7월엔 민자통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 6월 복역했다. 이제 67세의 노인이 되어 있었지만, 마음만은 여전히 조국의 통일을 향한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94년엔 김일성 주석 조문단 사건으로 구속되어 8개월 복역했고 다음해엔 범민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년간 복역했다. 범민련 부의장으로 구속된 강희남의장 대행으로 일을 하던 중 전국적으로 애국세력에 대한 탄압이 있을 때이다. 그리고 97년 다시 제 8차 범민족대회 사건으로 구속되어 다시 1년을 복역했다. 그 후 선생님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범민련의장으로 통일세력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셨다. 뿌리 깊은 나무로, 샘이 맑은 물로.

그리고 현재는 범민련 명예의장으로 통일의 길을 지키고 있다. 젊은이들에게 또 하나의 귀감이 되며. 올 6월 선생님은 남북대회에 초청을 받아 평양에 다녀오셨다. "아직도 평양 거리는 어둡습니다. 하지만 다녀 온 사람들의 말을 빌자면 그래도 점점 나아지고 있는 거라는 말에 위안을 받았습니다. 10년째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 북한 주민에게 동포애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여든이 넘은, 한 길을 바라보고 달려오신 선생님의 말 속에서 무엇이 선생님을 통일운동에 매진하게 했는지 어렴풋이 읽을 수 있었다. 양심수 후원회 산행의 최고령자이신이 종린 선생님.

"동지들이 다 산에서 죽었는데, 죽은 동지의 발자취라도 밟기 위해 동지들을 생각하며 산에 오르기 시작한 게 벌써 50년째입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마음먹은 산길을 걸으며 통일이 안 된 것에 대한 불만을 푸신다는 선생님. 그 걸음이 한달음에 금강으로 백두로, 자주통일된 조국강산으로 이어지길 바라며, 무무재를 뒤로하고 내려오는 길에 비가 그쳐있다.

권오헌 선생님과 후원회 동지들께

강성철 | 목포교9

그동안 평안하신지요.

6월1일 보내주신 후원회 소식과 사면관련 소식 잘 받아보았습니다.

지난 2003년 사면이후 노동자,양심수 등 13명 기결수 석방 이후 지금까지 반복되는 구속과

수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여전히 국가보안법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유를

억압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일은 75살의 강태운 선생님은 여러 가지 합병증으로 감옥에서 고생을 하고

계신다니

참으로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강태운 선생님은 즉각 석방되서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시간 남북의 노동자가 그리고 관광객,정치인이 자유롭지는 않으나 남과 북

을

오고가고 있습니다.그런데 75세의 노인은 국가보안법으로 감옥에 갇혀 있다니

그것도 건강한 몸이 아닌 위험한 병환의 몸으로 참으로.이 정부는 참인지 거짓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힘있고 가진자들은,권력가들은,기름기가 줄줄 흐르는 면상을 가지고 속이 아프다,종양이

생겼다,

우리는 알 수 없는 병명으로 잘도 석방되는데 이 땅에 양심과 통일을 외쳤다는 이유로 갇힌

양심수는

여전히 감옥에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 노동자와 모든양심은 저들이 석방시키길 바랄것이

아니라

석방될 때까지 투쟁해달라고..감히 말씀드립니다.

지금껏 투쟁과 후원으로 감옥생활은 바깥 동지들보다 편안한 안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동지들과 하루빨리 함께 살고자 합니다.

저는 오늘미결수용시설(영등포 구치소)에서 목포교도소로 이감을 왔습니다.

두루두루 넓은 사랑

박철민 회원을 찾아서

김혜정 | 회원

6월의 마지막날 비가 보슬보슬 내리는 점심시간에 회사 근처에서 박철민씨를 만났다. 그는 '여든여덟(한양대 탈춤동아리 88학번 동기모임)' 이라는 이름으로 종종 산행소식에 등장하는 모임의 일원이다. 얼굴을 막상 보니 알아볼 수 있었다. 작년 이맘때쯤에 철민씨 집(용인 어드메 산기슭에 있다.) 근처에 있는 광교산으로 산행을 갔었는데 그때 모두를 초청해서 맛있는 밥도 먹이고 농사지은 감자를 손마다 들려 보냈던 바로 그 회원이었다.

올해도 감자 농사를 지었는데 다음달 산행(7월에는 광교산으로 다시 간다)에서 '감자캐기' 행사를 해볼까 했지만 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 행사는 안하기로 했다고 한다. 그렇지만 지난해처럼 산행이 끝난 후 집으로 후원회원들을 초청한다고 한다. 예의 정성어린 밥상을 받아볼 수 있을 거 같은데 후원회원들을 이리 초청해줄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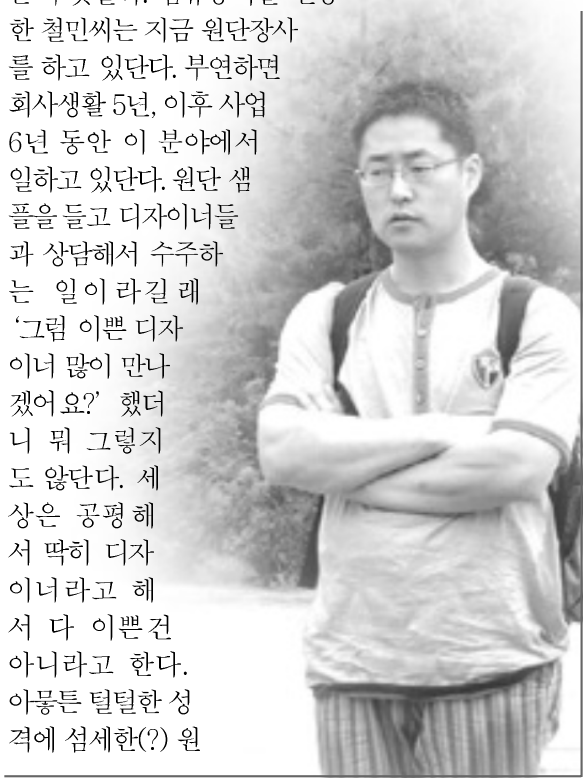
궁금함을 뒤로하고 일단 호구조사에 나섰다. 우선 가족관계는 부인 전주리-한살아래의 아리따운 부인과 7살 박동규, 5살 박동현 두 아들을 두고 있단다. 부인과는 학교 선후배 사이란다. 어찌 만났느냐고 물었더니 "대학 때 인기가 많았는데 부인의 적극적인 접근에 그냥 넘어가줬다" 는 비교적 위험스런 발언을 하였다. (이외에도 가정생활과 관련한 얘기들 중 부인에게 사실 확인할 필요성이 많이 있음을 종종 내비쳤다...^^)

자식자랑 좀 해주시죠?

"애들이 맘에 안 들어요. 툭하면 우니까.." 철민씨는 어릴적(6~7살 때) '쌈쟁이' 로 자랐다고 한다. 글로 옮기기엔 심히도 민망한 행동들(놀부가 살아왔나 싶은 심통), 기운이 펄펄 넘쳐나는 당찬 아이였던가 보다. 그렇게 촌에서 푸릇푸릇하게 자라났던 그로서는 요즘 아이들이 여려 보이기도 할 터이다. 하지만 앞에 말이 물론 본심은 아니다. 철민씨 네는 한달에 한번 '마누라 휴가' 날이 있다고 한다. 그게 재작년부터인가 시작했으니 아이가 꽤나 어릴 적부터 엄마의 자유를 위해 아이돌보기를 자처한 자상한 아빠인 것이다. 엄마도 배려했겠지만 어린 아들들을 떠맡는 것도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라 생각한다.(엄마들 입장에서는 지나친 칭찬일 수 도 있겠지만 말이다. -_-;;)

"뭐 밖에서는 잘하고 안에서는 뚝뚝하죠. 하고 싶은 일은 알아서 하고 시키는 일은 잘 안 해요." 이 정도 얘기면 부인이 속 좀 상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건 주리씨한테 직접 물어봐야 할 듯하다.

"긴 글 읽는 걸 싫어해요.. 말만 많이 하고 행동은 안하는 사람 별로 안 좋아하죠." 철민씨는 정말 말이 많지 않았다. 주변 사람들이 종종 대화상대로 의논상대로 그를 찾는다고 한다. 나도대화 중에 전에 간사 시절에 좀 친해놀 걸 그랬다는 생각이 스쳐지나갔다. 직업은 무엇일까. 섬유공학을 전공한 철민씨는 지금 원단장사를 하고 있단다. 부연하면 회사생활 5년, 이후 사업 6년 동안 이 분야에서 일하고 있단다. 원단 샘플을 들고 디자이너들과 상담해서 수주하는 일이라길래 '그럼 이쁜 디자이너 많이 만나겠어요?' 했더니 뭐 그렇지도 않단다. 세상은 공평해서 딱히 디자이너라고 해서 다 이쁜건 아니라고 한다. 아뭏튼 털털한 성격에 섬세한(?) 원



단장사가 어찌 어울릴꼬 했는데 좀더 얘기를 나눠보니 사실은 그렇지 않은가 보았다.

제일 관심있는 일이 뭐예요?

인터뷰준비를 제대로 해가지 못한 나는 떠오르는 대로 질문을 해댔다. 그러다가 내 얘기를 하기도 하고. 철민씨는 손으로 뚝닥뚝닥 뭔가를 만드는 일을 굉장히 좋아한단다. 동네사람들과 종종 모여앉아 모임도 하고 놀기도 하곤 하는데 바로 며칠 전에는 이웃집 마당에 그럴듯한 '정자'를 만들었단다. 설계도 직접하고 재료도 직접사오고 해서 일주일 동안 정자에 매달려 멋진 정자를 만들었는데 그 과정의 즐거움에 아직도 살짝 들떠 있는 느낌이었다. 정자를 만들 생각에 잠도 안왔다 하니 참 재미있는 일인가 보다.

나중에 여건이 되면 DIY 공방을 하고 싶단다. 그런데 공방을 하려면 목재상을 겸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 지게차 면허증을 따볼까 한단다.

그 다음 또 관심사는 뭐예요?

두 번째 똑같은 질문에 철민씨는 "딱히 없는데... 지금 하고 있는 공동육아하고 그걸 대안학교로 발전시키는 문제"라고 대답했다. 철민씨가 사는 수지에는 '주민생협'이라는 유기농매장과 '느티나무 도서관'이라는 마을 도서관이 있다. 이를 근거지로 하여 15명 정도의 어머니들이 모여 '어머니독서회' 활동을 해왔고 (아 물론 거기에는 전주리씨가 함께 하고 있다.) 이들이 드디어 올해 3월부터 공동육아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모임의 그늘아래(?) 아빠들 모임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철민씨의 솜씨는 여지없이 발휘되어 육아에 필요한 여러 기자재를 직접 만들곤 한다고 한다.

또다른 이웃집 마당에 지을(아직 집 주인과 상의하기 전이란다)새로운 정자와 조그만 다리를 만들 생각에 철민씨는 계속 즐겁다.

30대 중반을 넘어선 기분은 어떨까?

"세월이 빠르다는걸 느낍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각은 잘 안해요. 나이듦에 대해 서글퍼진다거나 하는", "운동관련 기사나 너무 어려운 상황에 대한 기사를 보면 ARS 걸고 하지만. 외면하고 싶은 때도 있구요. 내가 해야 되는 일에 대한 빚을 느끼죠. 그럴때"

나이가 좀 더 들면 촌에서 살고 싶단다. 농사에 자신은 없지만 농촌을 지켜야한다는 책임감이 든단다. 그러고 보면 철민씨는 정도 많고 책임감도 많은 사람인 것 같다. 아마도 그래서 후원회 활동도 긴 세월을 이어오고 있는게 아닐까.

마지막으로 물었다.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만약 북을 방문하게 되면 어느 분야의 누구를 만나야 하나. 그리고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할까 말도 잘 못하는데.", "사업관련해서는 염색공장 같은 것도 해볼 수 있는데.. 그건 환경파괴가 심한 직종이라 좀 그렇고.. 지금 비료가 필요해서 지원을 하고 있지만 북의 토질을 생각하면 단기처방이라 걱정도 되고.."

나는 철민씨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 민족의 경제를 살리는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돈에 욕심을 부리지도 않고 그것을 바라지도 않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말하는 그였지만 그냥 내 욕심에는 그랬다.

처음 만나는 순간 인터뷰를 당해서 매우 기분이 좋다고 말했던 철민씨와 헤어지면서 인터뷰한 나도 기분이 좋아졌다. 종종 후원회를 통해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며 가족과 동네 사람들 그리고 지역주민들까지 모

두 모두 그와 함께 행복하길 빌어본다.

감사합니다

'민족21'에서 7월호부터 민족21을 후원해주시기로 해서 양심수들에게 월간 말과 함께 매월 민족21을 보내드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근직 김봉례 회원께서 농사지으신 감자를 보내주셔서 낙성대 만남의집 선생님들과 회원, 이웃들 맛있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봉천자활후견기관에서 봉사자분들 오셔서 정순택,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 혈압과 당 뇨수치 측정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6월 신입회원 [( )안은 추천인입니다]

김덕진 | 편상범(김호현) | 김순자

서울에서 46분 거리에 평양이 있어요

김호현 | 운영위원

2005년6월 14일 오전 9시45분 평양 순안공항, 2000년 6월 남북의 정상이 만나 포옹하던 감격의 장소에 5년 만에 벅찬 가슴으로 내가 섰다. 인천공항을 출발한지 50분 만에 도착할 수 있는 길을 이토록 힘들게 오다니 더욱 만감이 교차했다.

6. 15공동선언 5돌을 기념하는 615명의 민간대표단이 300명으로 줄어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지 못한 것이 아쉽고 그만큼 내 어깨도 무거웠다.

공항 주변의 낮은 산들은 전부 개간이 되어서 옥수수 등이 심어져 있고 모내기가 끝난 논은 경지정리가 잘 되어 있었다. 평양공항에서 환영행사를 마치고 숙소인 고려호텔로 이동하였다. 길거리에는 '평화자동차' 등의 광고판이 보여 이채로웠다. 한국산 자동차도 가끔 보이고 아이스크림 등 각종 먹거리를 파는 길거리 노점들도 가끔 눈에 띄었다.

생각했던데로 길거리에 사람은 많지 않았지만 자전거 및 도보로 이동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었고 공중전화를 거는 사람들이 자주 눈에 띄었다.

문득 이 소식을 현장 중계라도 하듯 서울 같으면 얼른 꺼냈을 휴대폰을 평양공항에 보관하였기 때문에 아무데도 소식을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여기가 평양이라는 것을 더욱더 실감나게도 했다.

아쉬운 생각이 들었다. 이동통신회사에 오래 근무했었기 때문에 남북교류가 늘어나면 북쪽에 와서 통신분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도 있었다.

고려호텔에 여장을 풀고 점심으로 평양냉면을 모두 다 맛있게 먹었다.

식사후 남, 북, 해외 민간대표단은 만경대 소년학생궁전을 방문하였다.

북에는 소년궁전과 같은 거대한 건물들이 아주 많았는데 이는 집체문화와 조직문화를 중시하는 사회현상으로 보였으며,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웅장한 규모에 모두다 놀란 표정들이었다.

소년학생궁전은 평양등 학생, 청소년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우리로 말하자면 특기 적성교육을 실시하는 총요람과도 같은 곳이었다.

여기는 기본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흡수하고 단계가 높아지거나 전문적인 수업 즉 각종 특기 종목별, 연령별, 단계별로 구분하여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지고 있었다.

한결같이 맑고 밝은 얼굴 및 열의에서 우리 아이들과 비교되는 많은 차이점들을 느낄 수가 있었다.

참관 행사뒤 소년궁전에서 어린 청·소년들의 공연을 보면서 탄성과 환호를 아낌없이 보낼수 있는 참으로 흥겨운 자리가 이어졌다.

드디어 "6. 15 공동선언발표5돌 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을 알리는 민족대행진과 개막식이 천리마 동상과 김일성 경기장에서 열렸다.

때마침 하늘에서는 우리민족의 단합을 시기라도 하듯 엄청난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었다.

천리마동상 앞에서 출발한 민족대행진은 간단한 행사 뒤 김일성경기장에 이르는 개선문 거리 2km구간을 직접 걸어가는 장엄한 의식이었다.

양 옆 도로를 꽉 메운 평양 시민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열광이었고 "조국통일"과 "6. 15 실천"등의 구호는 개선문 거리를 가득 메우고도 남았다. 계속되는 장대비에도 아랑곳하지 않는 시민들과 손도 맞잡고 어깨도 두드리며 눈물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되지않는 그런 모습으로 개막식장인 김일성 경기장으로 향했다

축전 개막식은 14일 밤 9시경 빗방울이 계속 떨어지는 가운데 김일성 경기장에서 화려하게 열렸다. 이번 통일대축전은 남과 북, 해외 민간대표단은 물론 남북의 당국대표단이 참여해 그 의미가 더욱 큰 민족공동의 행사가 되었다.

우중에도 10만의 평양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경기장과 거리에서 기다리며 환영해주는 평양 시민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고마운 생각 및 여러 가지 스치는 상념들이 합쳐 많은 눈물이 나왔다.

운동장에는 단일기로 울타리를 치고, 알록달록 고운 한복을 입은여성들이 '하나'라는 카드섹션을 선보였다.

공식행사 말미에는 많은 참석자들이 운동장으로 뛰어나와 모두가 하나되어 덩실덩실 춤을 추는 가슴 벅찬 광경을 연출하기도 하였다.

오랜만에 가져보는 가슴벅찬 감동의 순간이었다.

행사뒤 12시가 되어서야 저녁만찬을 마치고 고려호텔에 와서 삼삼오오 호프집 및 바에서 밤 늦게까지 잔을 기울이는 여흥을 즐겼다.

평양에서의 첫날밤은 이렇게 깊어 가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서도 그리운 장기수 선생들을 언제나 볼 수 있을지 계속 가슴 한켠에 무거운 짐으로 남아있었다.

6월 15일, 새벽6시 머리가 조금 무거웠지만 생각보다 몸의 컨디션은 좋았다. 평양의 술은 남쪽처럼 인공감미료나 화학첨가물등을 넣지 않아 두통이나 음주 뒷끝이 깨끗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호텔23층에서 내려다본 평양거리는 참으로 깨끗하고 수줍은 촌색시처럼 단아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부지런한 사람들은 6시인데도 지하철 입구는 벌써 많은 사람들로 붐비었고 무궤도 버스나 2층 버스도 부지런히 움직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오전 참관행사로 4.25문화회관에서 민족통일대회와 공동사진 전시회가 있었다. 매 참관 행사나 이동시마다 같은 조에 있는 통일광장의 임방규선생님, 범민련의 김영옥선생님, 민가협 조순덕회장님 및 대구의 함기명 어머님, 유가협회장 신동숙선생님등을 안내하고 모시는 일 또한 커다란 임무(?)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한발 먼저 뛰어야 했다. 또한 우리의 8호차 조장으로 인원파악 및 잔 심부름까지 해야하는 영예(!!!)를 안기도 했다. (사실은 나이가 젊다는 핑계로 조장을 시켰다나 어쨌다나....) 아침부터 기다리던 점심시간이 돌아왔다.

서울에서부터 그동안 많은 정보를 분석하고 축적했

던 "단고기 요리" 코스요리의 정보부터 좌석 배치까지... 사전 점검을 완료하고 드디어 자리에 착석하여 코스별로 나오는 요리를 즐겼다.

남한에서는 보통 수육이나 탕 등으로 단순하지만 역시 북측의 요리는 대, 여섯가지의 코스별 요리로 그야말로 별미였다. 부드러운 수육과 절편형태 그리고 감미로운 갈비, 죽등 양도 많고 맛이 일품이었다

더구나 같이 동석하였던 선생님들과 임헌영선생님은 남기신 요리를 전부 먹어야 한다며 나에게 몰빵(?) 시켜주는 바람에 나중에는 상당한 고문이 되었지만 언제 다시 먹을지 몰라 한참 무리를 하였다.

같이 나오는 반찬들도 인공감미료를 전혀 쓰지 않아 단백하지만 특하 물김치는 남한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있는 메뉴였다.

만난 요리를 먹고 난후 부문별 상봉모임으로 우리가 속한 통일연대는 지역부문과 함께 북측 및 해외 부문별 모임을 유서깊은 쑥섬에서 갖게 되었다.

쑥섬은 1948. 5. 1일부터 4일 까지 남·북 제 사회단체 대표 연석회의가 열렸던 뜻 깊은 곳으로 남측에서 김구, 홍명희 선생등이 참석하였던 곳이며 대동강변 자락의 참으로 아름다운 곳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각자 소개가 있었는데 양심수훤원회 소개를 하여 많은 참석자들로부터 축하인사를 받았고 뜻밖에 양심수후원회 탄생부터 같이하셨고, 이후에도 많은 도움을 주셨던 일본의 이철 선생님을 뵙게되었다. 너무 반가워서 우리 둘은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고 선생님께서는 공개적으로 평양에서 이렇게 양심수후원회 대표를 보게 되어 감개 무량하며, 목이 메이신다는 말씀을 해 주셨다.

회원 모두와 권오헌회장님에게도 안부를 꼭 전해달라며 소식지도 잘 받아보고 있으시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하셨다.

상봉 모임 후 북측이 마련한 민족가극 "춘향전" 공연이 청년중앙회관에서 열렸다.

평상시 알고 있던 주제라 큰 호기심이 일지는 않았지만 막상 극이 시작되자 웅장하면서도 장면마다 바뀌는 세트며, 가극의 실력에 모두들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1막이 끝나고 2막의 흐름에서는 많은 사람들 눈가에 눈물이 맺혀 있는 풍경들을 볼 수가 있었다. 춘향전 보고 이렇게 눈물을 흘려본 것이 언제였던가? 기억이 새로웠다. 가극을 보고 인민문화궁전에서 북측이 준비한 축하연회가 있었다.

늦은 10시쯤 시작된 연회는 12시에야 끝났고 호텔에서의 뒷풀이 여흥은 평양에서의 두번째 밤을 하얗게 만들어 놓았다.

아침 다섯시 머리는 무거웠지만 송환 장기수 선생님들을 오늘은 뵐 수 있지 않을까 하여 옷이며, 캠코더도 완벽하게 점검하였다.

6.16일 삼일째 되는 날이다.

오전 참관행사로 만경대 및 주체탑등을 둘러 보았고 개선문도 보았다.

가는 곳마다 방문단을 배려하는 따뜻한 마을들을 읽을 수 있었고 만경대에서는 1불에 4개나 하는 얼음과자를 사 먹으면서 잠시 여유를 즐길 수 있는 시간을 가

질 수 있었다.

점심으로 옥류관 냉면을 먹었다. 아리따운 아가씨가 옥류관 냉면을 맛있게 먹는 비법을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다섯 그릇은 먹어야 한다고 자꾸만 권한다. 주변 선생님들도 그 체격에 그 정도는 먹어야 한다고 야단들이시다. 어느덧 냉면 먹기 대표 선수가 된 느낌이다.

부지런히 먹었지만 세 그릇째를 먹고 나니 이미 배는 포화상태다. 옥류관 냉면이 맛있다고 소문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선 면이 쫄깃하고 국물이 담백하여 질리지가 않았다 그리고 식사 때마다 나오는 물김치는 얼마나 인기가 많던지 무려 다섯 그릇 씩이나 먹게 되었다.

오후 일정으로 류경정주영체육관에서 열리는 체육유희경기가 열렸다.

모두가 신나게 뛰고 넘어지며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흥겨운 시간이었다.

경기뒤 폐막식이 있었으며, 바로 이어 남측에서 준비한 가극 금강의 공연이 봉화예술극장에서 열렸다.

신동엽 시인의 시를 극화한 것으로 동학혁명과 우금치마루, 금강을 무대로한 반제. 반봉건의 기치가 오늘에도 살아있어야 함을 웅변하는 무대였다.

마지막 연회로 남측이 준비한 연회가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

다들 홀가분한 표정과 미련들로 가득했지만 나는 시간이 갈수록 초초하여 어찌 몸 둘 바를 몰랐다.

아직까지 송환 장기수선생님들과의 만남 일정 및 언급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초조하게 한상렬 준비위원장 및 한충목 집행위원장에게 채근하기도 하고 읍소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긍정적인 답을 얻지 못한채 마지막 밤은 그렇게 한량없이 지나가고 있었다. 새벽1시에야 연회는 끝나고 호텔에서 와서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몇 분과 주점에서 술로 우울한 기분을 달래 보려 해도 안타까운 마음을 추스릴 수 없었다.

그렇게 밤은 지나갔고 아침이 되어 짐을 꾸리면서 선생님들에게 전달해야 할 선물이며, 회원들의 편지 및 사진들을 어떻게 전달해야할지 난감했다.

오전에 동명왕릉 참관한 후 호텔에 와 짐을 꾸리면서, 꿈에도 그리는 선생님들을 여기까지 와서 뵙지 못하고 간다는 생각에 참으로 서러운 눈물이 흘렀다.

북측의 안내원 선생은 내 어깨를 껴안으며 눈물을 훔쳤고, 본인이 어떻게든 잘 전달해 드리겠다고 하여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하여 나의 6. 15민족 대축전 행사 참가는 반쪽의 성과를 남기고 짙은 여운을 남긴채 평양발 인천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조국통일!

갈리진 것을 하나로, 흩어진 것을 하나로...

얼마나 많은 걸림돌들을 제거해야만 우리는 외세 없이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인 통일을 당당히 이뤄나갈 수 있을 것인가?

짧은 기간 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임과 아울러 또 다른 많은 숙제들을 던진 평생 잊을 수 없는 시간이었다.

잘 있으라 내 반쪽 땅이여, 더덩실 춤 출 수 있는 그 날까지... 어서 오라 우리끼리 어깨동무하며 더덩실 춤 출 수 있는 그 날까지...

후원회원 여러분, 권오헌 회장님.

고맙고 죄송합니다

유홍준 교수가 부른 '이름 없는 영웅' 들을 송환 장기수 선생님들에게 바치는 심정으로 다시 한번 읊조리며 참관기를 마치려 합니다.

"남모르는 들기에 남모르게 피는 꽃
그대는 아시는가 이름 없는 꽃
거치른 들판 우에 아련히 피어나는
그대는 아시는가 이름 없는 꽃"

통일의 빗방울 되어

김서현 | 남성중학교 2학년

"늙지 마시라 어머니여
세월아 가지마라 통일되어 우리 만나는 그날까지
너 기어이 가야만 한다면
어머니 앞으로 흐르는 세월을 나에게 다오
내 어머니 목까지 한해에 두 살씩 먹으리" …

북한의 오영재 시인의 '어머니'라는 시의 일부이다. 우리 집에 이 시로 만든 노래가 들어있는 음악회 테이프가 있다.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는 노래가 많아 즐겨 듣는 편인데 흥겹게 따라 부르실 때도 있다. 그런데 유독 이 노래가 흘러나오면 아버지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계신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할머니 생각이 나서 그렇다고 하셨다. 우리는 이산가족이 아니지만 나는 이 노래가 세상에서 가장 슬픈 노래처럼 느껴진다.

문득 오영재 시인이 어머니를 만났는지 궁금해져서 알아보았다. 그는 서울에서 열리는 이산가족상봉 행사에 왔지만 그토록 간절히 그리워하던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형제들만 만났다고 한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다. 부모형제들이 헤어져 만나지도 못하고 수십 년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큰 고통일까?

그동안 이산가족상봉이 몇 차례 있었지만 이산가족 중 극히 일부만 단 한번씩 만났을 뿐이다. 상설 면회소도 없으니 다시 이별의 괴로움을 안고 살아야 한다. 이산가족 중에는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고 한다. 빨리 통일이 되어야 더 이상의 고통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올해는 6.15 공동선언 5주년이다. 2000년에 남북정상이 만나 반갑게 악수하는 모습에 우리는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아 기뻐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사업 등 남북교류가 늘어나는 것을 볼 때마다 통일에 한걸음씩 가까워지는 듯하다. 그러나 아직도 핵문제를 둘러싼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 남북한간의 불신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벌어지면 오히려 뒷걸음을 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아버지께서 평양에서 열리는 6.15공동선언 5주년 기념축전에 참석하게 되셨다. 615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방문한다고 하셨다. 참 반갑고 호기심이 생기는 소식이었다. 만약 내가 북한에 갈 수 있다면 역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문화재를 보고, 그 곳 친구들과 고구려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 방북일정에 들어있는 옥류관 냉면이 먹고 싶어서 함께 데리고 가달라고 조르기까지 했다.

그런데 북한이 방북단 인원을 많이 줄이라고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행사를 며칠 앞두고 그런요구를 하는 북한이 이상하고 아버지께서 방북을 하실 수 없게 될지도 몰라 그와 관련된 뉴스에 많은 관심이 갔다. 그중 하나가 북한은 요즘 들어 부쩍 더 전쟁의 위협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평양 축전을 제대로 치룰 수 없다는 것이다.

나로서는 북한 측 주장이 잘 이해되지 않았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보다 북한에서 느끼는 전쟁에 대한 공포는 훨씬 크다고 보도되었다.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민족이 입게 될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이번 일을 보면서 남과 북의 신뢰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를 많이 느꼈다. 남과 북은 물론이고 주변국가와도 대화와 교류를 많이 늘려서 신뢰를 회복해야 평화적인 통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방북단 규모가 3백여 명으로 줄어들었고 아버지께서는 평양에 가시게 되었지만 마음이 편하지 않으신 듯하다.

"끊임없는 빗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는 말이 있다. 나는 청소년의 한사람으로서 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복잡한 국제관계나 남북한간에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뚜렷한 해결방법은 모른다. 다만 우리 모두가 하나의 빗방울이 되는 자세로 그 걸림돌을 뚫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작은 실천이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달 전쯤 대동강변에 북한 어린이들에게 공급할 빵 공장이 들어섰다는 기사를 보았다. 남쪽에서는 빵을 만들어 낼 기계설비와 재료를 대고 북쪽에서는 건물과 인력을 댔다고 한다. 수많은 후원자들이 한달에 5천원씩 내서 이루어지는 사업인데 적은 돈이지만 여러 사람이 모으니 큰일을 해내고 있었다.

나와 동생은 부모님의 동의를 얻어 매달 용돈에서 5천원을 떼어 후원자로 가입하였다. 적은 돈이지만 5천원으로 빵 3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한다. 영양실조로 눈망울이 더욱 커 보이는 북한의 어느 아이에게 하루에 1개라도 줄 수 있다면 다행이겠다. 대신 군것질을 줄이고 학용품도 더 아껴 쓰기로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런 작은 혜택이나마 받는 어린이들은 소수에 불과하고 수많은 어린이들은 여전히 배고픔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는 북한을 도와주는 것을 '퍼주기'라고 표현하는데 만약 우리의 부모형제가 그렇게 굶주리고 있다면 설사 자신이 어렵더라도 어떻게라도 그들을 도우려고 애를 쓸 것이다. 지금 도울 수 있다면 도와주어야 통일이 되어 함께 살게 되었을 때도 떳떳할 것이고, 통일비용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는 속담이 있다. 그러나 백지장을 서로 잡아당기면 찢어지고 말 것이다. 서로 힘을 합쳐야만 이산의 아픈 상처를 치료할 수 있고 전쟁의 위협에서 벗어나 우리나라가 더욱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모두 하나의 빗방울이 되어 바위처럼 단단하게 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자. 남과 북의 빗방울들이 합쳐 큰 강을 이루고 흘러 통일의 바다에서 만나게 될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린다.

편집자주
이 글은 양심후원회 김호현운영위원의 따님 김서현양의 글로써 2005.6월에개최된 통일부장관기 "제10회 전국 학생 통일 글짓기 대회"에서 중학생 부문 최우수상인 통일부 장관상을 수상한 작품입니다. 축하합니다...

바다와 동굴, 들풀 – 우리도 그들처럼…

여혜정 | 회원

6 월 25일 토요일, 우리는 강원도 삼척을 향해 아침 일찍 서울을 떠났다. 1950년 6월 25일, 우리 민족의 현대사에 지울 수 없는 상흔으로 남은 그 날로부터 55년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기행지가 강원도이다 보니 도로사정을 감안해 일찍 출발해야 했는데 그래서인지 기행에 함께한 회원수가 어른, 아이 포함해서 스물 여덟명으로 다른 때에 비해 단출했다.

나는 사실, 헤어진지 10여년이 넘은 딸에게 이번 기행에 함께 가자고 했고, 요즈음 힘겹게 지내는 딸아이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듯 해서 설레임와 두려움에 상기되어 있었다. 그러다가 이런 저런 이유로 아이에게 다음을 기약하자는 메일을 보내고서 그 아이의 침묵에 며칠을 가슴앓이하는 중이었다.

어쨌거나 주위의 강력한 권유로 어린 성원이와 함께 기행에 합류한 마당에 강원도의 바다와

숲, 좋은 사람들의 향기에 아낌없이 나를 내맡겨 사면초가의 현실을 헤쳐나갈 힘을 얻어 돌아오리라 기대했다. 자랑스러운 일도 아닌 개인사를 서두에 꺼낼 수밖에 없는 이유는, 어쩌다보니 기행기를 떠맡긴 했지만, 그 즈음의 내 마음자리를 얘기하지 않고는 글을 쓸 수 없을 것 같아서이다.

그렇게 강원도를 향해 떠난 우리는 오후 2시 무렵 촛대바위로 유명한 추암해수욕장에 도착해 늦은 점심을 해결하고, 초여름치곤 뜨거운 날씨를 이기려 삼삼오오 모여 때이른 해수욕을 즐기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해변을 걸어 다시 버스에 올랐다.

기행 첫번째 행선지 죽서루는 관동팔경 중 하나로 바다를 향해 휘돌아 흐르는 오십천의 풍치가 뛰어난 절벽 위에 세워진 누각으로 자연 암반을 그대로 주춧돌로 사용한 자연미가 돋보이는 곳이다.

루에 올라 물길 너머를 바라다보니 최근 지어진 큰 건물들과 동굴엑스포타운이라는 거대한 구조물이 들어서서 옛 정취를 고스란히 느낄 수는 없었지만, 루와 주변의 암벽들 사이의 오죽숲, 그리고 물길 따라 병풍처럼 둘러선 절벽이 어우러져 그지없이 아름다웠을 옛날을 상상할 수는 있었다.

그리고, 환선굴.

덕항산이라는 낯선 이름의 산 중턱에 위치한, 동양최대의 석회암 동굴이라는 환선굴을 향해 꽤 가파르긴 하지만 잘 정비된 등산로를 따라 오르다보니 발 닿는 곳마다 절경인 강원도의 산답게 덕항산의 산세도 그야말로 선경이다.

하지만 흔치않은 감동의 순간은 땀 뻘뻘 흘리며 동굴에 도착해 동굴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였다.

우선 자그마치 5억 3천만년 전에 생성되었다는 동굴의 거대한 규모에 놀라고, 1시간을 넘게 정해진 길을 따라 동굴 내부를 돌아보며 바닥을 흐르는 물길과 폭포, 그리고 태고로부터 흘러내린 그 물이 만들어낸 종

유석, 종유관, 동굴진주, 동굴산호, 커튼 등의 동굴생성물 앞에서 그저 탄성을 내지를 뿐. 형형색색의 인공조명 아래, 상상하기조차 힘든 오랜 시간 동안 땅 위로부터 스며들어 흐르는 물과 시간이 만들어낸 거대한 동굴 내부의 섬세한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새삼 인간과 자연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네 인간도 저 동굴을 만들어낸 자연과 시간이 빚은 한 생명임이 분명한데, 우리는 어찌 이리도 근본을 잊고, 자연을 거스르며 살아가는 것인지.... 겸허해지지 않을 수 없는 자연 앞에 설 때 나이들 수록 깨닫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인간으로 살아왔던 지난 시간 전부에 대한, 나의 존재 자체에 대한 참회와 죄없이 태어나는 아이들이 감당해야할 인간으로서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다. 살아볼 수록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막막하게만 느껴지고, 그나마 기대고 살아야할 인간들끼리도 아귀다툼의 굴레에서 벗어나질 못하니 말이다.

상정리의 '들풀학교'에 도착, 짐을 풀고 저녁식사를 했다. 들풀처럼, 들꽃처럼 소박하게 살고 싶다는,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의 아름다움을 전파하고 싶다는 소망으로 조금은 불편한 건 사실이지만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택한 김연순님의 남다른 꿈이 이루어낸 공간답게 운동장 가득 들풀과 꽃들이 자라고 있다.

뒷 날 아침에 보니, 폐교된 상정분교는 학교를 둘러싼 나즈막한 산과 조그만 학교 건물, 온갖 벌레들이 함께 어우러져 소박한 아름다움을 느끼게 한다.

이젠 날마다 등교하여 재재거리는 아이들은 없지만, 생태학습 프로그램으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원하는 사람들은 자연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니, 이 폐교는 여전히 사람을 키우는 행복한 학교인 셈이다.

저녁식사 후, 조선붕당사에 대한 성균관대 하원호 교수님의 강의가 있었다.

숙종-경종-영조-정조 시대를 거치면서 남인의 득세와 송시열의 죽음 이후 숨죽여야 했던 서인 세력이 장희빈의 몰락으로 정권 회복의 기회를 얻고, 비교적 안정적으로 노론 중심의 정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영조를 거친 후, 왕권회복의 의지에서 비롯된 정조의혁신정치에 위기감을 느낄 즈음 정조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노론(서인)의 세도정치가 고착화되는 과정의 전후좌우를 대체로 알기쉽게 훑어주셨다.

조선의 붕당정치를 민주국가의 의회정치에 비유하는 학자들도 있다지만, 그건 어불성설이라는 단호한 말씀도 기억에 남는다.

나는 어린 아들에게 불려다니느라 제대로 경청하지는 못했지만 거칠게 결론 내리자면, 조선시대 지배이데올로기였던 성리학도 현실적으로는 지배계급 내부의 이권다툼이 '학문'이라는 고상한 형태로 표출된 것일 뿐이라는 것.

덕분에 예나 지금이나 줄서기에 몰두하는 '권력자'들과 그들의 이전투구 놀음에 힘겹게 한생을 살아내야하는 '약자'가 존재할 뿐인 세상을 본다.

그리고 잠시 엉뚱한 생각을 한다.

여전히 지배계급인 그들의 후손들 중, '내부고발자'는 왜 없는 것인지... 그들의 선조들이 권력의 대를 잇기위한 이권다툼의 속내를 감춘 채 현란한 학문적, 철학적 수사로 갑론을박하는 동안 조선의 몰락과 일제의 침탈, 6·25를 거치면서 지금까지-이른바 '그들의 백성'들이 당해야했던 고통에 대한 자성은 불가능한 것인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란 강한 자의 편에서 쓰여진다는게 사실이지만 왜 역사의 진실은 늘 '중심'에서가 아닌 '언저리'에서 밝혀져야 하는 것인지... 인간이 이기적인 동물인 탓이려니 하면서도 말이다.

그래도 나는 사람을 믿는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믿는다. 사람은 누구나 이기적이지만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가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해주는 것임을 나이들면서 자연스럽게 알게된다.

멀리 갈 것도 없다. 나 자신만 돌아봐도 그 정도는 배울 수 있다.

나의 현재는 지난 날의 숱한 선택의 순간에 내가 택해온 길의 한 정점이다. 내가 선택한 그 모든 순간의 집합체, 결정체가 바로 지금의 내 모습인 것이다.

자신을 남처럼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아는 사람은 알겠지만, 그렇게 되돌아보면 절로 낯아지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 싶다.

각설하고,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뒷풀이 시간.

우리는 언제나처럼(!!) 술 한 잔씩 걸치며, 강의시간에 다하지 못한 질의, 응답과 자유토론을 빙자한 즐거운 담소를 나누었다. 나는 늘, 이 쯤에서 다른 세상 사람이 되어버리는 통에 뒷날 얼굴들지 못하는 게 다반사였다. 이 날도 예외는 아니었지만 초반부에 독도 문제로 시끄러운 근래의 동북아 정세에 대한 심도 깊은 얘기들은 한반도의 미래와 맞물려 본강의보다 더 생동감 넘치는 토론의 장이었던 것은 기억한다.

독도문제 해결에 매진해야한다는 권오헌 선생님의 말씀, 그리고, 한 잔 들이킨 김에 거기 모인 누구에게도 황당했을 질문—독도문제에 대해 대한민국 사학자로서가 아니라 정말 객관적으로 어떻게 생각하세요?—을 공연히 삐딱하게 던진 나, 엄연히 역사에 기록된 우리 땅이라는 당연한 말씀에 덧붙여 국제법은 제국주의적인 토대 위에 성립된 법인 까닭에 일본의 영유권 주장에 시시비비를 논의하는 것은 일본의 불순한 의도에 휘말리는 꼴이 되어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논의 자체를 무시하는게 우리의 입장이었다는 하교수님의 성실한 답변.

일본을 교묘하게 이용한 미국의 동북아 패권장악 의도에 대한 권오헌 선생님의 성토에서 비롯된 담론에서는 일본 뿐 아니라 중국 역시 중화의 기치 아래 동북아의 패권을 두고 점차 흑심을 내보이는 상황이 심화될 것이라는 하교수님의 말씀.

소규모의 국제연대를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일본국민들의 각성을 불러일으키고, 일본 대중의 의식 자체를 재편시키지 않으면 안된다는 권선생님과 하교수님의 말씀에 한반도의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 느껴지지만, 위정자들은 여전히 이전투구에 눈 먼 작태만 거듭하고 있으니...

그리고, 기억에 남는 한가지.

내가 무슨 질문을 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하교수님의 답변은 명쾌했다.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지."라고 하셨던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세계'를 만드는게 우리 모두가 추구하는 궁극의 꿈이겠지만, 나는 그 답변이 너무 명료한게 놀라워서 "그게 가능하다고 보세요?"라고 반문했었다. 하지만, 안다. 가능하다고 믿어서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되도록 노력해야하는 것이겠지. 그것이 그나마 인간의 역사를 진보시켜왔을 터. 그러니 어떠한 억압도 없이 사람답게 살고싶은 우리들의 최종의 목표는 '지구별의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 모든 생명체가 평화로이 공존할 수 있는 세상 만들기'가 되지않을까.

기행 두번째날.

미인폭포, 그리고 너와집.

미인폭포는 건기여서 폭포수가 가늘긴 했지만, 폭포수가 떨어지는 깎아지른 듯한 절벽은 가히 절경이었다. 폭포를 찾아 가는 길에서 산딸기가 있길래 아이에게 맛보였다. 좋다.

남근설화가 전해내려오는 해신당에 당도해서는 눈길 두기 민망한 거대한 남근조각상이 즐비해서 짐짓 실실 웃으며 지나쳐야 했다.

해신당 공원 내에 어업과 관련한 여러 자료들을 모아놓은 어촌민속전시관의 한 전시실에도 남근숭배와 관련된 세계 여러나라의 민속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는데, 성원이가 민망스런 그림 앞에 신기한 듯 올려다보며 서 있길래, '성원아, 저 아저씨는 쉬야를 제 때 하지 않아서 고추가 병들었다. 병들어서 엄청 부었네." 했더니, 어린 아들은 "그래, 맞아!" 맞장구치고는 그제야

그 자리를 뜬다.(에구~. 앞으로 아들 성교육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거야?)

삼척항 가까이에서 점심식사 후 척주동해비를 둘러보는 시간이 있었지만 나는 식당에서 쉬었다.

자료를 통해 척주동해비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조선후기 문신이자 남인이었던 미수 허목(선조 28~숙종 8년)이 노론과의 당쟁에서 밀려 좌천되어 삼척부사로 부임했을 당시, 조수피해가 심각한 것을 염려하여 '동해송'을 지어 비를 세우니 심각한 조수의 해에서 벗어났다는 얘기가 전한다.

오후 3시, 우리는버스에 올라 바다와 작별인사를 하며 돌아오는 길을 재촉했다. 출발한 지 얼마되지 않아 우리들이 떠나기를 기다렸다는 듯, 장마비가 시작되었다. 버스 안에서 성원이와 함께 뒷목이 뻐근하도록 줄곧 잠을 잤는데, 문득 깨어보니 혜순이의 제안으로 기

행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 감상문을 쓰게하고, 심사하여 시상까지 한다고 한바탕 흥겨움이 넘친다.

아이들이 발표하는 걸 들어보니, 기행감상문은 시, 산문, 일기 등 글쓰는 재미를 아는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표현방식이 총망라되었는데, 역시 나이가 어릴 수록 그 표현이 너무도 솔직하고 예뻤다.(아이들이 쓴 글이 궁금하신 분은 후원회 홈피의 오감시롱 방에 들어오셔서 감상하시길.) 그나 저나 우리 성원이는 언제 커서 기행감상문 쓰나?

한반도 통일의 당위성을 굳게 믿고 자신의 전부를 바쳐온 권오헌 선생님, 양심수로 40년 넘게 옥고를 치르신 안학섭 선생님, 아마도 에미가 부실해 보였는지 우리 아들 성원이를 특히 예뻐해주시던 안선생님 사모님, 그리고 역사가 알려주는 진실에 귀기울이는 사학자 하원호 교수님, 그리고 언제나 다정하고 반듯한 우리 오감시롱 사람들.

이들과 함께한 특별한 여행은 언제나처럼 행복했다.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보낸다.

알립니다

장기수선생님과 함께하는

이북 영화 상영회

-조국 광복60년 기획시리즈-

■일 시 **매월 둘째 수요일 오후 7시**
■장 소 **통일부 북한 자료센터(광화문 우체국6층)**
■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 **7월 13일 (수) 오후 7시**
민족과 운명 제34부<카프>작가편 제1부
(조선예술영화촬영소,1996년제작73분상영)

■ **8월 10일 (수) 오후 7시**
돌아오지 않는 밀사
(신필름영화촬영소, 1984년제작 120분상영)

광복절 양심수 사면 촉구

양심수후원회 전국모임 기자회견

■일 시 **7월 14일 목요일 오전11시**
■장 소 **대전교도소앞**
■기자회견 후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인 양심수 면회

7월 산행

시원한 나무그늘아래서 흐르는땀 식혀가는
7월입니다. 철민씨네 감자가 손님맞을 준비
벌써 끝냈다네요. 그늘 아래서 분 폴폴나는
감자먹게 광교산으로 갑니다.

■일 시 **7월 17일 일요일 오전10시**
■장 소 **미금역(분당선) 8번출구 앞**
■준비물 **간단한 도시락과회비 3,000원**

지로로 회비를 납부하시는 분들께 당부드립니다.

지로용지의성명란에기입을하시지않고납부를하실경우 '회비내신 분들' 란에 '무명' 으로 처리됩니다.
또한 이름을희미하게쓰시거나흘려쓰시는경우도식별이어려워 무명 처리되거나잘못 표기되게됩니다.
이름을분명하게써주세요~! 되도록CMS납부방식으로전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으로 오랜만에 산에 오르다

이현근 | 회원

참으로 오랜만에 산에 오른다. 다른 곳에 빠져서 십년 넘게 산을 찾지 않았다. 후원회 산행도 12년 전 용인에 내려온 후로 처음인 것 같다. 줄곧 소식지 산행기를 통해서만 누가 산행에 참가했나를 보곤 했다. 해가 더해질수록 후원회 산행이 활력을 잃고 참가하는 사람수도 줄어드는 것을 보고 자책도 했지만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산행에 동참하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다가 나중에는 그런 마음마저 사라졌다. 아이들도 이제는 많이 커서 웬만한 산행은 무리가 없는데도 한동안 아이들이 어려서 함께 데려갈 수 없다는 이유도 한몫 했다.

어쨌거나 일요일 아침 일찍부터 집사람은 밥을 짓고 반찬을 준비했다. 우리 아이들은 워낙 아침잠이 많아서 일요일은 10시가 다 돼서 일어나기 일쑤인데 산행 날 아침에는 학교에 등교하는 것처럼 일찍 깨워야했다. 산행 가면 준철이와 다인이 등 같이 놀 수 있는 친구들도 많이 와서 재미있게 놀 수 있다고 꼬득여서.

금정역에 도착하니 몇 팀은 벌써 수리산 입구 쪽으로 이동을 했고 권 선생님을 비롯한 범민련 후원회 식구들과 오감시롱 식구들이 눈에 띄었다. 부랴부랴 산 입구 쪽으로 이동을 해서 류종인 선생님과 사모님, 리영희 선생님을 뵈러 힘들게 왔다는 서미라 선생님도 만났다. 40 여명의 회원들이 나뭇가지마냥 아이들을 주렁주렁 매달고서 산에 오르니 후원회 산행이 신나는 소풍길이다.

수리산은 꽤나 나무가 울창해서 그늘 속에서 산행을 할 수 있었지만 등산로는 생각했던 것보다 쉬운 코스는 아니었다. 날씨도 무더워서 산에 오르자마자 땀이 흘러내리고, 아이들은 물을 찾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이들은 힘들다는 불평 없이 어른들과 똑같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산에 오른다. 산 정상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다시 반대편 쪽으로 얼마를 내려가서 점심을 차렸다. 산세가 험해서 많은 식구들이 한곳에 모일 수가 없어서 삼삼오오 편안한 곳을 찾아서 싸가지고 온 음식 둘레에 앉아서 점심을 먹었다. 예전 기억으로 산행의 백미는 점심 식사 시간이었다. 많은 반찬은 아니지만 땀 흘린 뒤에 먹는 점심이라 훨씬 더 맛이 있었고 곁들여서 막걸리가 한 사발씩 돌고 김호현 씨가 북한에서 가져온 장뇌술도 한두 잔씩 돌았다. 예전에 산행에서는 점심 후에 여흥도 즐기고 자기소개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산행 후에 리영희 선생님과의 강의가 예정돼 있어서 정리를 하고 바로 출발했다.

가파른 길을 미끄러지듯 솟구쳐 내려왔는데 약속 장소까지 가려면 산을 더 타야 한다 해서 우리는 잠시 술렁였다. 모두가 초행길이라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길을 물어물어 간다. 이제부터는 길이 완만하고 그늘이 져서 부담이 없었지만 다소 오르는 길도 있어 아이들이 걱정도 되었다. 그러나 아이들은 힘들다는 기색도 없이 어른들과 똑같이 정해진 코스를 마치고 강의 장소인 '임간교실' 바로 아래에서 리영희 선생님과 만났다. 리 선생님의 강의가 있기 전에 6.15공동선언기념식 행사로 북한에 다녀 온 김호현 씨의 보고회가 있었다. 평양냉면과 단고기 얘기를 비롯해서 2000년에 북으로 송환되신 선생님들을 만나지 못해서 애를 태우다 결국은 포기

하고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뒷얘기를 들었다.

숙소에서 지척에 있는 선생님들을 볼 수 없었던 안타까운 심정을, 리영희 선생님은 남한의 시각으로 보면 이상하게 보이지만 그 체재 속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이 있고 그 역할을 넘어서는 것은 자기 친인척과 관련이 있더라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야한다고 말씀하셨다. 남한과 북한은 반세기가 넘게 정반대의 방향으로 나아간 체제 속에서는 서로가 이해할 수 없는 점이 많다는 것은 당연한데 이쪽은 정상이고 저쪽은 비정상이라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이다. 반세기 이상 동안 극으로만 치닫던 두 체제가 이제 서로 마주보기 시작했는데 그 동안의 간극이 너무 커서 실제로 손을 잡을 정도로 가까워지기까지는 또 얼마나 걸릴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나친 낙관도 지나친 비관도 위험할 수 있으며, 최소한 두 체제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화해 분위기를 싫어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세력이 있는데, 현세를 살고 있는 우리가 그런 세력이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는 게 그날 강의의 중요 내용이었다. 앞서 김호현 씨가 방북 후 인천공항에 내려서 출국장을 나오는데 이른 시간임에도 방북을 반대하는 시위대와 맞부딪쳤던 상황을 얘기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안타까운 점은 시위대 중에 좀더 열린 시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바라보아야 할 젊은이들이 더 극성으로 방북단의 귀환을 비난해서 착잡한 기분이 돼서 돌아왔다는 거였다. 과연 누가 젊은 세대를 냉전시대의 감성으로 되돌려 놓고 남북의 분열을 조장하는가? 리 선생님은 그 점에 대해 여러 정황들을 논거로 들어서 설명해주셨다. 미국 패권주의의 한축인 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은 자신만이 절대 선이고 이에 저항하는 세력은 굴복시키거나 타도돼야 할 대상이며, 그러한 세력이 한반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일전에 기독교 우익단체 회원들이 미국의 초청으로 미국을 다녀온 적이 있다는 사실을 강의 중에 누군가 지적했는데 이처럼 공개적으로 지원하는 것 외에도 또 어떤 식으로 한반도에 기독교 근본주의의 아류를 심어 동족 간에 분열을 일으키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효순이 미선이 사건, 대통령 탄핵사태 등을 통해서 기독교 단체들이 미국과 관련해서 보여준 극단적인 대립과 분열을 익히 보아왔고 미국은 이러한 상황에 기름을 붓는 것은 아닌가! 이외에도 중요한 군사정책과 관련해서 정부와 군부가 엇박자로 가는 사태를 종종 보아왔는데 군부의 중요 인사들이 미국 편향적이고 우파적인 인식으로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는 의견도 제시하셨다.

군부의 종속화에 미국이 암암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에 계실 때 인공위성에서 당신의 결혼기념 사진을 찍으려던 일화를 통해, 모든 정보를 쥐고 있는 미국이 우리를 농락하며 자신의 입맛대로 정세를 이끌어 나가는 것에 대해선 몽매했던 우리가 얼마나 비극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실감했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한다. 문명의 이기가 우리의 생활을 안락하게 바꾸어주고 인간은 여유로운 삶을 누릴 것이라던 교과서의 예측은 이미 오래 전에 깨진 것 같다. 삶은 더 각박해지고 빈부의 차는 세계화 추진 속도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부자는 그들이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기를 쓰고 가난한 자들은 그들을 ◎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형국이다. IMF 이후 온 나라가 부의 추구와 축적에만 매달려서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열 그리고 그런 분열을 획책하는 세력들에 인식이 부족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자리였다.

예상 외로 오래 걸린 등산에 치쳤는데도 모두들 한 시간이 훨씬 넘는 선생님의 강의 동안 불편한 자리에서도 진지하게 경청했다. 선생님 또한 지팡이에 의지하는 불편한 몸에도 불구하시고 물 한 모금 드시지 않고 한 치의 흐트러짐 없이 말씀해 주셨다. 우리 모두 선생님의 그 형형한 눈빛을 간직하고 하산을 했다.

후기

뒷풀이를 한다고 술이며 안주를 잔뜩 사가지고 산자락에 모여 앉는데 성재 친구를 데려간 우리는 너무 늦어진다며 자리를 떴다. 들리는 소문으로는 김길자, 이득형, 신현익 등후원회 명창들의 소리가 수리산을 뒤흔들었다 한다. 이에 질세라 리 선생님이 '우아한 취미'인 클래식으로 '갑돌이와 갑순이'를 답가로 부르셨다니 그 흥이야 듣는 이도 가슴 설레게 했다. 리영희 선생님의 사모님까지 올라오셔서 한판 잔치가 벌어진 모양인디 끝까지 있지 못한 우리가 몹시도 아쉬운 대목이다.

6.15 5돌 기념 마라톤 대회를 참가하고서

신현부 | 회원

원고 청탁이 들어 왔을 때 무엇을 어떻게 써내려가야 할지 머리 속이 정리가 되지 않았다.

내가 참가한 일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도 없고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평가하기에는 너무 역량이 부족한 일이다. 그래도 써야 한다기에 내가 요즘 읽었던 책들과 관련해 쓰기로 한다

1.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도시국가들을 파괴하기 시작했을 때 고대 그리스에서도 분명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 스토아 학파와 에피쿠로스 학파의 철학자들은 개인적 구원이라는 새로운 도덕을 설파하기 시작하였으며, 중요한 것은 정치도, 문명 생활도 아니고, 페리클레스와 데모스테네스, 플라톤과 아리스토텔레스가 세웠던 위대한 이상들도 모두 부질없으며, 개인적 구원이라는 긴급한 과제 앞에서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말했다. 이것은 매우 웅대한 형식의 〈여우와 신 포도〉우화다. 인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얻지 못하게 되면, 자신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노라고 스스로 세뇌해야만 한다. 만일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원하도록 스스로를 길들여야 한다. 깊은 곳으로의 영적이 침잠, 세상의 모든 두려운 불행에 맞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일종의 내적인 요새로의 은둔은 흔히 이런 방식으로 일어난다. 내가 속한 영지의 왕, 곧 제후가 내 땅을 몰수하면, 땅을 소유하고픈 마음이 사라진다. 제후가 높은 지위를 주려하지 않으면, 지위는 하찮은 것, 중요하지 않은 것이 된다. 왕이 재산을 강탈해 갈 때, 재산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아이들이 영양실조와 병으로 죽으면, 지상의 소유물은, 심지어 아이들에 대한 사랑까지도, 신에 대한 사랑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 모든 것이 이런 식이었다. 인간은 점차 자신의 주위를 단단한 벽으로 둘러싸 연약한 표면을 드러내지 않으려 한다. – 최대한 상처를 덜 받고 싶은 것이다. 갖은 상처들이 그 위에 겹겹이 쌓여 왔으므로, 그는 최소의 공간에 자신을 제한시켜 더는 상처에 노출되지 않기를 바란다. 『낭만주의의 뿌리』65-65쪽, 이제이북스 2005

2. 엘 이딜리오는 고향을 등지고 새롭게 정착한 이주민들, 그들 위에 군림하는 독재자 같은 읍장, 일확천금을 노리고 발을 들여놓은 노다지꾼들, 마치 전투라도 치를 듯 중무장을 한 채 나타나 닥치는 대로 동물들을 쏘아 죽이는 밀렵꾼들과 백인들이 찾아 드는 곳이다.

그러나 인디오들과 동물들이 삶의 터전을 외지인들에게 빼앗긴 채 더 깊은 오지를 찾아 떠나 버린 그곳은 원주민들에게도 문명인에게도 더 이상 약속의 땅이 될 수 없는 암담한 세계다.

한편 그곳에는 안토니오 호세 볼리바르라는 노인이 살고 있다. 그는 아마존의 원주민 수아르 족과 함께 생활하는 동안, 그들을 통해 밀림에서의 생존과 그곳의 원주민들과 동물들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한 지혜로운 인물이다. 나날이 황폐해지는 아마존을 지켜보며 가슴 아파하던 노인은 자신이 늙어 간다는 것과 우연한 기회에 글을 쓸 줄

은 몰라도 읽을 줄안다는 사실을 깨달은 뒤부터 자신의 보금자리인 오두막에서 일년에 두 번씩 치과 의사 루비쿤도 로아차민이 가져다 주는 연애 소설– 적어도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의 책장이 닳도록 읽고 또 읽으면서 무료하고 적막한 나날을 보낸다.

그러던 어느 날, 금발의 시체가 발견되면서 한가롭기만 한 마을이 두려움으로 술렁거리고, 그로 인해 세상사를 멀리한 채 연애소설을 읽던 노인의 평화가 위협을 받는다. 밀렵꾼인 양키에게 새끼들과 수놈을 잃은 암살쾡이가 그 보복으로 인간 사냥에 나선 것이다. 이때부터 이야기는 본격적으로 시작된 우기 –어떤 파국적인 종말을 예시하는 듯한 전조–와 함께 극적인 긴장감을 유지하면서 인간과 동물의 피할 수 없는 한판 싸움으로 진행되고, 마침내 그들의 처절한 혈투는 노인의 연애 소설만큼이나 고통스럽고 아름다운 사랑 뒤의 해피엔딩이 아닌, 이미 예고된 암시나 전조처럼 사뭇 비장하고 비극적인 결말로 끝난다.

『연애 소설 읽는 노인』 –열린책들 186 – 188

3. 1의 내용을 읽고 나는 개인적 구원을 지나치게 내세우는 논리와 종교에 의심의 눈길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개인적 구원도 중요하지만 자기가 살고 있는 세상과의 연대, 참여도 중요한 가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2의 내용의 저자가 세풀베다인데 칠레태생으로, 독재치하에서 운동 활동을 하던 문인이다.

피노체트의 칠레를 떠나 독일로, 스페인으로 삶을 옮겨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강연에서 자기의 조국은 칠레가 아니라 스페인어라고 한다. 독일에 몇년간 살아 독일어도 하지만 자기가 느끼고 사랑하고, 사유할 때 , 정말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낄 때는 스페인어 속이라고 하면서 자신의 조국은 스페인어라고 말을 한 것과 시민으로서 사회적 책임이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고 한 말이 기억에 남는다. 즉, 정치에 사회에 참여하는 시민으로서의 책임과 의무가 필요해지는 시대임을 강조한 것이다.

그래서 마라톤에 참석해 뛰었다. 시민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한강을 옆에 끼고 걷는 듯 뛰는 듯 뛰어서 도달하니 물과 시원한 쭈쭈바 그리고 메달이 주어졌다. 난생 처음 목에 걸어보는 메달이었다. 물론 나만 받은 것은 아니고 참가해 돌아오는 사람 모두에게 주는 것 이지만. 뿌듯한 기운이 가슴속에서 넘쳐 나오는 것을 느껴 보았다.

낙성대 이야기

문상봉선생님

문상봉선생님께서 오른쪽 눈 백내장 수술하셨습니다. 그동안 많이 불편해하셨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되었고 한달정도 통원치료 하셔야 한답니다.
아직은 비도 많이 오고 중심 잡기 힘든데 버스타고 병원 다녀오시기 힘들어하시구요.

착해지는 점심

만남의 집 상추는 장마에 녹아들었지만 탐스런 방울토마토에 향좋은 깻잎, 아삭거리는 고추가 실하게 열리고 있습니다. 떡 벌어지는 점심상은 아니라도 선생님들의 정성 가득한 푸성귀 '착해지는 음식'이 있는 점심드시러 오세요. 씨를 뿌렸던 봉숭아가 꽃을 티뜨리고 있습니다. 백반넣고 잘 찧어 손톱에 물들이면 첫사랑 추억이 다시 살아날까요? 만남의 집 최고 서비스, 착해지는 점심의 마지막 코스입니다.

봉례언니네 감자

현관 문앞에 감자 박스가 수북이 쌓여있습니다. '서산 박'이라고만 쓰여있는 박스를 보고 있으니 문상봉선생님 말씀이 그것도 선생님이 잊어버릴까 써두신 거랍니다. 잡수시라고 그냥 놓고만 가신게죠. 엄청 실하게 생긴 감자 몇 알 가져다 딸래미 소풍 간식 싸주고, 분 폴폴나게 쪄서 선생님들이랑 오시는 손님들과 나누어 먹습니다. 박선생님, 봉례언니 잘 먹겠습니다.

◀ 서울만평 2005년 6월 21일

서울만평 2005년 6월 23일 ▶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후원회원 가입 및 후원금 자동이체(CMS)신청해주세요!
그동안 바쁘고 번거로워서 회비를 못내셨던 분들도 주민번호와 계좌번호만 알려주시면
너무나도 간단하게 회비를 내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양심수후원회로 보내주십시오.

〈 보내실곳 〉
FAX : 02-888-4350 E-mail : yangsimsu@hanmail.net
주 소 : 서울특별시 관악구 봉천6동 1690-141

매월 챙겨가며 은행에 회비를 납부해야하거나 자동이체를 위해 은행에 직접 방문해야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후원회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성 명		예금주	
연락처		거래은행	
예금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핸드폰번호		이메일	
주 소			
후원금액	5천원( ), 1만원( ), 3만원( ), 5만원( ), 10만원( ), 30만원( ), 기타( )		

2005년 월 일 신청인 (인/서명)

●개인신상정보의 비밀은 철저히 지킵니다.
●출금일은 매월 5일이며 잔액부족 등으로 미이체시 15일 또는 23일에 이체됩니다.
●인감 또는 서명은 해당 예금계좌(통장) 사용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현재 구속중인 양심수 명단

"6월 8일자 민가협 조사에 의한 구속자는 학생 12명, 노동자 60명, 농민 2명, 재야22명 양심적병역거부자들은 1,077명 (전쟁없는세상 4월 5일조사)입니다."

이름	분류	소속	사건명	구속날짜	적용법규	형 량	만기일	수감지	기미결
김광태	노동자	건설일용노조	여중생추모집회	2004-02-04	공방, 폭력	1년6월	05/08	전주교11 17	기결
정재윤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16	업방, 폭력			울산구26	미결
이문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고공시위	2005-05-17	업방, 폭력			울산구31	미결
우재준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고공시위	2005-05-17	업방, 폭력			울산구35	미결
김병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고공시위	2005-05-17	업방, 폭력			울산구48	미결
문욱희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06	업방, 폭력			울산구29	미결
박종필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06	업방, 폭력			울산구40	미결
김한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8	업방, 폭력			울산구2	미결
김상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8	업방, 폭력			울산구12	기결
김상관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8	업방, 폭력			울산구36	미결
박동원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8	업방, 폭력			울산구16	미결
김의중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37	미결
김강진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0	업방, 폭력			울산구45	미결
정이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15	미결
성원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43	미결
권준덕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19	미결
최석영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6	미결
추태열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33	미결
함영돈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11	미결
김용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28	미결
서갑부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20	미결
김은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8	업방, 폭력			울산구49	미결
김의석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관련 집회	2005-04-01	집시			울산구39	미결
차기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28	업방, 폭력			울산구34	미결
이두교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52	미결
황수만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4-01	업방, 폭력			울산구 9	미결
정승문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8	업방, 폭력			울산구23	미결
차동홍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8	업방, 폭력			울산구7	미결
박사우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4	미결
김연원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14	미결
박영용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13	미결
이민우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17	미결
홍두표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46	미결
금대현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25	미결
김종운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30	미결
김명식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8	미결
안태욱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10	미결
최영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32	미결
주민철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18	미결
권혁수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고공시위	2005-05-28	업방, 폭력			울산구38	미결
이춘근	노동자	건설플랜트노조(울산)	파업	2005-05-23	업방, 폭력			울산구5	미결
김석영	노동자	금속연맹	노동자대회(11.9)	2004-03-11	집시, 폭력	1년6월	05/09	경주교375	기결
엄기준	노동자	금속연맹 (충남)	노동자대회(11.9)	2003-12-10	집시, 폭력	1년4월+1년6월	06/10	대전교2999	기결
박성진	노동자	금호석유화학	정리해고 항의	2004-06-10	명예훼손	1년	05/06	순천교626	기결
김우용	노동자	기아자동차노조	경제특구반대시위	2004-02-22	업방, 집시	2년6월	06/08	안양교 1589	기결

김성환	노동자	삼성일반노조	노조활동관련	2005-02-22	명예훼손, 정통법	10월	항소중	울산구 27	미결
구재보	노동자	세원테크노조	이현중열사 관련	2003-12-22	폭력,업방	1년6월+2년6월	07/12	대전교 1959	기결
김영길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	파업	2005-04-08	공무원법			서울구 145	미결
김도영	노동자	전국공무원노조(법원)	사법개혁 관련	2005-05-24	공무원법, 공방			영등포구 3405	미결
강성철	노동자	전해투	한성여객 파업 등	2004-02-28	공방,업방	1년6월+6월+6월	06/02	영등포구 3426	기결
안기호	노동자	현대차비정규직노조	파업	2005-02-13	업방,폭력			울산구 24	미결
김종인	노동자	화물통합노조(준)	화물연대 파업관련	2005-01-09	업방,집시	2년6월	항소중	부산구 6056	미결
박태규	노동자	화섬연맹	노동자대회(11.9)	2003-11-12	집시,폭력	1년6월+1년6월	06/11	부산교 1406	기결
박현정	노동자	효성노조	노조활동 관련	2005-12-04	폭력,명예훼손	6월	05/06	부산교 500	기결
오승훈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파기환송심	목포교 19	미결
장 철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파기환송심	목포교 9	미결
송화동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파기환송심	목포교 28	미결
서 영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파기환송심	목포교 3	미결
김정곤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13	업방	3년	파기환송심	목포교 14	미결
김용태	노동자	LG정유노조	파업	2004-08-20	업방	2년6월	파기환송심	목포교 7	미결
정영호	농민	전농(전남 무안)	송정리미군기지 철수시위	2005-05-29	집시			광주교 5006	미결
조현수	농민	전농(청송 안덕)	한칠레FTA반대시위(6.20)	2003-11-30	특공,폭행치상	1년6월+10월	06/03	안동교 3010	기결
임태훈	재야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2-27	병역법	1년6월	05/08	서울구 3318	기결
이원표	재야	사회당(대전)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11-02	병역법	1년6월	06/05	대전교 800	기결
윤치고	재야	사회보호법철폐공동대책위	청송감호소 처우항의	2004-06-20	특가법	1년	05/06	원주교 891	기결
임성환	재야	아웃사이더㈜ 대표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9-08	병역법	1년6월	06/03	영등포구 2579	기결
염창근	재야	이라크평화네트워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12-01	병역법	1년6월	06/06	충주구 654	기결
강태운	재야	전 민주노동당 고문	회합통신 사건	2003-08-15	국보	6년	09/08	대구교 90	기결
임재성	재야	전쟁없는세상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1-28	병역법	1년6월	상고중	서울구 1560	미결
정중영	재야	전철연	서대문경찰서 항의방문	2003-05-22	특공	8월+1년6월	05/09	안양교 5019	기결
김영재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상도동)	2004-01-19	공방,폭력	2년	상고중	서울구 76	미결
고천만	재야	전철연	강제철거반대(수원)	2004-12-16	공방,특공	8월	상고중	수원구 365	미결
채남병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거반대	2005-01-31	폭력,공방			의정부교 664	미결
김재환	재야	전철연(고양풍동)	강제철거반대	2005-01-31	집시,폭력			의정부교 1173	미결
인태순	재야	전철연(권선3지구)	강제철거반대(남가좌동)	2003-05-22	특공	1년6월+1년	05/12	청주여 12	기결
황석기	재야	전철연(서울신설동)	강제철거반대(청계천)	2005-05-20	공방			성동구 1030	미결
주왕식	재야	전철연(서울청진동)	강제철거반대	2005-05-12	공방,폭력			서울구 55	미결
조영귀	재야	전철연(수원망포)	강제철거반대	2005-02-17	집시,폭력			수원구 482	미결
성낙경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화염병,치사			수원구 339	미결
이규천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03	업방,폭력			수원구 332	미결
홍경희	재야	전철연(오산수청동)	강제철거반대	2005-05-20	특공,공방			수원구 414	미결
오태양	재야	좋은 벗들(사)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8-30	병역법	1년6월	06/02	충주구 894	기결
민경우	재야	통일연대	회합통신 사건	2003-12-01	국보	3년6월	07/05	전주교 2500	기결
유호근	재야	희망동네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2-17	병역법	1년6월	항소중	서울구 2576	미결
이동진	학생	경상대	한총련불탈퇴(7기)	2004-07-27	국보	3년	07/07	대구교 50	기결
이덕용	학생	경원대	한총련불탈퇴(10기)	2003-07-19	국보,폭력	2년6월	05/12	군산교 985	기결
이종남	학생	경원대	2001년 민중대회	2003-10-11	집시,폭력	2년6월	06/03	공주교 1301	기결
박대성	학생	경원대	이적표현물	2004-04-15	국보,폭력	2년6월	06/10	마산교 1048	기결
김성봉	학생	한신대	대우차정리해고반대시위(01년)	2004-02-14	집시,화염병	2년	06/02	청주교 96	기결
임치윤	학생	동아대	양심에따른 병역거부	2004-09-07	병역법	1년6월	06/03	부산교 1655	기결
나동혁	학생	서울대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4-08-31	병역법	1년6월	05/12	서울구 2360	기결
윤영석	학생	영남대	한총련불탈퇴(12기)	2005-06-06	국보,집시			경산경찰서	미결
윤영일	학생	전남대	5.18 묘역시위,이적표현물	2004-04-10	국보,집시	1년6월+1년6월	07/04	목포교 12	기결
민기채	학생	전남대(졸)	이적표현물	2003-04-12	국보	1년8월+3년	07/11	대전교 4009	기결
백용현	학생	조선대	한총련불탈퇴(12기,13기)	2005-05-23	국보, 집시			광주교 5007	미결
조정의민	학생	한국예술종합학교	양심에따른병역거부	2005-05-17	병역법			성동구 596	미결

01

경찰청 앞에서 통일연대, 전국민중연대 공동으로 '3차 반미반전 월례공동행사 불법 폭력 과잉진압규탄 책임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을 열다.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이규재 범남본 의장, 송효원 한총련의장, 박성준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등의 규탄 발언이 있었고 권오창 실천연대 대표, 권오헌 양심수후원회 대표 경찰청에 항의서한 전달하다.

청년학생으로 구성된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반전평화 미군철수를 위한 3기 6.15전국순례단(단장 김지하)은 미대사관 앞에서 전국순례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이 날부터 춘천, 수원, 평택, 청주, 대전, 광주, 대구, 부산, 서울 등 11일 까지 전국을 돌며 6.15공동선언 의미와 주한미군철수에 대한 선전 홍보를 할 것이라고 하다.

국방부앞에서 직도 폭격장 폐쇄와 군산 미군기지 확장저지 전북대책위 주최로 '직도 폭격장 폐쇄 군산미군기지 확장반대 집회'를 열다. 이세우 상임대표, 민주노동당 전북도당 엄경석위원장 등 규탄 발언이 있었고 항의서한을 국방부에 전달하려 했으나 경찰의 폭력저지로국방부 담 넘어로 집어넣다.

02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70회 목요집회 열다. 전철연 김동수씨, 오산철거민투쟁 주거권 문제 등 사례발표가 있었음.

인천 문학산 패트리어트 배치 철회 및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는 인천 가톨릭회관에서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SAM-X)계획 무엇이 문제인가'란 주제로 토론회를열다. 토론회에서는 미국의 MD체제로의 편입과 대북선제공격, 대중국포위를 노린 패트리어트 기지계획 철회를 촉구하다.

03

서울시청앞에서 제16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추모제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제16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범국민추모기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행사준비위 상임공동대표의 여는말, 강민조, 정종렬 상임공동대표와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의 시청광장 불허이명박 서울시장 규탄 발언과 박순희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대표의 선포문 낭독이있었음. 참가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로 가서 서울시의 행사불허에 대한 평등권 침해 등을들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강민조, 권오헌, 정종렬대표 등이 국가인권위에 진정하다.

민주노동자연대 등 피해단체와 '통일뉴스'는 1999년 보안3과에 통합되면서 폐지된 경찰청 보안국 보안4과가 6년동안 폐쇄되지 않고 '흥제동 분실'로 남아있으면서 인권침해와 정치사찰을 해오고 있다며 · 경찰청장 공개사과 · 6년간 보안4과 운영과정과 사찰자료 입수경위공개 · 불법사찰, 사상검열 즉각 중단 · 공안문제연구소 해체를 요구하고 성명을발표하다.

04

전교조 대구경북지회 회의실에서 대구 ·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제10차년도 대의원대회가 열리다. 윤보현 사무국장 사회로 이영희 공동대표의 대회사, 한기명 공동대표의 대구 · 경북지역 양심수후원회 걸어온 길 회상, 권오헌 민가협양심수후원회장, 이학돌 비전향장기수 등 축사에 이어 9차년도 사업 보고 및 평가 승인, 9차년도 감사보고 및 결산보고 승인, 회칙개정, 임원선출, 10차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이 있었고 신현우 회원 등 영남대 89학번 동문 등에 대한 감사패 증정, 마지막으로 국가보안법 폐지?양심수 석방등 결의문을 채택하다.

한국청년단체협의회, 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저지 100만 서명운동본부 등은 6.3 한일협정 반대 43주년을 맞아 탑골동원 앞에서 '일본 군국주의 부활저지 결의대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전상봉 한청의장이 읽은 결의문에서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 역사왜곡, 군국주의 부활책동을 막기위한 범국민적 투쟁을 벌일 것이라하다. 집회를 마치고 일본대사관앞까지 행진, 항의서한을 대사관에 전하다.

윤광웅 국방부장관과 도널드 럼스펠드 미국방장관은 아시아 안보회의가 열리고 있는 싱가포르에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열고 이북(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권붕괴 등 급변사태발생시 공동대응 방안을 담은 개념계획(CONPLAN)5029를 계속 보완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그러나 작전계획 5029와 대북군사대응을 한다는데서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음.

05

제16회 민족민주열사 · 희생자 범국민추모기간 행사로 추모행사 준비위 주최 추모연대 주관으로 마석 모란공원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사 묘석 설치 및 유가족 한마당 행사가 있었음. 설치작업에 앞서 터다지기 행사로 박중기 추모연대 의장, 신동욱 유가협 회장(대독), 강승규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등의 추도사가 있었고 참가자들은 12개조로 나누어 80여분의 열사 표적 설치작업을 했음.

06

서울 서초동 예술의 전당에서 한국고등학교 학생회연합회(한고학

련) 출범식을 갖다. 한고학련은 출범선언문에서 고등학생들은 1929년 광주학생운동을 시작으로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등 역사의 전환기마다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학생 또는 학교를 구성하는 주체 가운데 하나라는 주인의식으로 활동할 것이라하다. 이보다 앞서 지난 5일에 열린 대의원대회에서는 김백건(중앙대 사대부고 3년)학생이 의장으로 선출되었음.

07

서초동 검찰청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와 KAL858기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대책위는 '검찰은 KAL858기 사건관련 재판기록 즉각 공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다. 신성국 대책위 집행위원장(신부)의 공개 촉구발언과 권오헌 올바른 과거사법 · 범국민위 공동의장의 과거사법개정촉구발언, 유족회 회원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차옥정 유족회 회장과 신성국, 권오헌 대표검찰에 공개촉구내용의 질으서를 내다.

현대 아산은 이날 1,369명의 관광객이 육로로 금강산으로 떠난 것과 관련 '금강산 관광 6년 7개월만에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히다. 지난 1998년 11. 18일 금강호의 첫 출항한해 로를 이용하여 557,681명, 육로로 443,905명이 금강산을 찾았다고 하다.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의 규모 조정과 관련 지난 4~7일까지 평양에서 실무접촉을 하고 돌아온 백낙청 남측준비위원장은 남측대표단을 300명(가극 금강단원 90명 포함)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08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64개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회의실에서 '시민사회단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회견문을 통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대북적대정책중단,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 문제 등 미국의 일방적 주장과행패를 거부해야 한다고 입장발표.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민족통일대축전 실무접촉과 관련 통일연대 대표자회의를 열고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대표단 규모를 추인하다. 또한 이날 오후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던 남측준비위원회 공동대표자회의에서도 남북사이 합의내용을 승인하다.

리처드 롤리스 미국방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가 지난 4~6일 서울에 와 외교통상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에게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끝났다'며 '전략적 유연성을 비롯한 최근 한미간의 현안과 관련 미국쪽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언론들이 보도.

09

통일연대 회의실에서 상임대표회의를 열고 6.15 대축전규모축소에 따른 통일연대 소속 참가대표를 최종 결정하다(14명)

용산미군기지 5번게이트 앞에서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주최로 대북정밀폭격을 위한 스텔스기 즉각 철거와 대북침략작전계획 일체를 폐기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있었고 이어 같은 자리에서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 수용 협박 미국규탄 기자회견'을 열다. 미국방부 리처드 롤리스 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의 협박성 발언과 관련 유영제 평통사 미군문제팀장, 이규재 범남본의장, 강정구 교수의 규탄발언이 있었고 1번게이트앞까지 행진.

탑골공원 앞에서 민가협 571회 목요집회를 열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전철연 사무국의 오산지역 철거민 투쟁과 경찰의 폭력 새한 사례발표, 권오헌 공동의장의 5.15, 5.29일 반미반전 집회에 대한 경찰의 과잉진압규탄과 미국의 전쟁책동 규탄발언, 충남 예산 덕산에 있는 윤봉길의사 생가 박정희 글씨 현판을 철거하여 구속되었던 양수철 서천문화원장의 출소인사가 있었음.

서대문 노고산동 소재 '이한열 기념관' 개관식과 종로 낙원동 소재 '이문학회' 마당에서 이문회우 주관으로 박치음 콘스트(소쩍새)가 있어 다녀왔습니다. 이한열 열사를 추모하며 콘서트를 축하합니다.

조국광복60돌 6.15공동선언발표 5돌을 맞아 (사)베를린 한인화(회장 이환도)와 6.15공동선언 유럽공동준비위원회(위원장 박소은) 공동으로 '6.15유럽동포축전'이 지난 7일 베를린에서 열렸다고 통일뉴스 유럽통신원이 전해오다. 이 동포축전에는 남측 대사관 장시정 총영사와 북측대사관 로태웅 참사 부부등이 함께 했으며 축전 2부에서는 송기웅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원과 강진욱 연합뉴스 국제부차장의 '6.15공동선언의 의미와 과제'에 대한 강연과 유럽 동포들의 축하공연이 있었음.

일본 도쿄도 일본 청년회관에서 1,000여명 동포가 함께한 가운데 6.15공동선언-일본지역준비위(위원장 곽동의) 주최로 '6.15공동선언발표 5돌기념 재일동포 통일대회'가 열리다. 서만술 재일조선인총연합(총련)의장과 곽동의 위원장 등의 정치연설과 청년학생들의 '6.15로 가자!' 등 축하공연이 있었음.

10 ----------

6.15청학연대 등 6개 청년학생단체는 미대사관앞에서 '한미동맹 분쇄, 민족공조 실현촉구와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청년학생 기자회견' 을 열다. 전상봉 한청의장, 송효원 한총련의장 등의 결의발언과김지하 한총련 조통위원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는 미대사관 앞에서부터 인사동 야외극장까지 평화행진을 하는 등 '반미반전 금요실천' 행사를 하다. 통일광장, 범민련, 양심수후원회, 6.15전국순례단 등이 함께.

워싱턴 백악관에서 2기 부시정권들어 처음으로 '한미정상회담' 을 열다. 정상회담에서는 이른바 '북핵문제' 와 '한미동맹' 에 관해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밝히다. 언론들은 미국은 이북이 핵무기계획을 포기했을때 '다자 안전보장과 에너지를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고 궁극적으로 조미간에 보다 정상적인 관계(more normal relationship)가 가능하다고 말한 것으로보도하다.

신촌에 있는 음식점 '거구장' 에서 이승미, 이재필 회원의 아드님 정호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여 축하해 주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게 자라길 빕니다.

11 ----------

동국대학교 만해광장에서 범민련 남측본부, 사월혁명회,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범청학련 남측본부, 통일광장,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등 8개단체 공동주회로 '6.13-9.8 반전평화 미군철수 남북해외 공동운동기간 선포대회' 가 열리다.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대회사, 송효원 한총련의장, 권오헌양심수후원회장의 정치연설과 윤기진 범청학련 남측본부의장의 남북해외 공동선포문낭독, 전상봉 한청의장의 남북해외공동선포문낭독이 있었음. 그 밖에도 6.15반미반전 전국순례단 등 문예공연이 있었음. 마치고 광화문 연린시민공원까지 행진하다.

광화문 열린시민공원에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추모제 행사준비위원회 주최로 '제16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가 열리다. 사전행사로 제1회 '민족민주가족가요제' 가 열리다. 모두 다섯팀이 경연을 벌여 열사계승상, 자주상, 민주상, 평화상, 통일상을 받다(심사위원으로는 행사준비위 권오헌 상임공동대표, 이덕우 변호사, 김용태 민예총 부회장 등) 추모제 본행사는 박석운 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상임공동대표이 대회사, 이수호 민주노총위원장, 이해경 민주노동당 대표, 박중기 추모연대 대표 등의 추도사, 백기완선생 지은 추도시를 박태운열사의 조카 박태성 어린이가 대신 읽음. 이어 유가족 추도사를 대표하여 강민조 유가협 이사장의 인사말, 마지막으로 송효원 한총련 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이어 영정에 헌화가 있었고 오른편에 마련된 흰천에 결의의 글들을 쓰는 것으로 모두 마침.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송창학, 정형근, 이창희, 김인해, 김은, 권오헌 함께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1,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전국민중연대, 통일연대 공동으로 대북전쟁반대, 한반도 평화실현 평택기지 확장반대 6.11촛불대행진 '자! 촛불을 밝히고 미군없는 세상으로!' 가 진행되다.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의 여는말, 이혜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등의 결의발언, 김지태 평택 미군기지 확장반대 범국민 대책위원회 공동대표와 이규재 범남본의장의 정치연설, 송효원 한총련의장, 박희진 한청 부회장이 투쟁선포문을 함께 읽다. 몸짓패 '들꽃' 과 노래패 '우리나라' 등 공연도 있었음.

12 ----------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부의장을 역임했던 고 주명순 선생님 7주기를 맞아(13일) 범남본 지도부와 고인을 존경했던 여러분이 김포시 김포공원묘지에 모신 고인의 묘소 참배가 있었습니다. 이종린 명예의장, 김영옥 선생님 등의 고인을 회상하는 말씀이 있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고인에 대한 약력소개가 있었습니다. 주명순 선생님은 특히 양심수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갖고 국가보안법폐지, 양심수 석방에 앞장서 싸우셨으며 조국통일운동에서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고 이종환 선생님 등이 출소하시어 가실 곳이 마땅치 않아 집 마련 모금을 할 때 선생님께서는 3천만원을 양심수후원회에 선뜻 내주시기도 했습니다. 고인이 명복을 빕니다.

낙성대 만남의 집에서 후원회 소식 164호 발송작업을 하다. 문상봉, 김영식 선생님과 김호현, 장재영, 변의숙, 이승미, 이재필, 나순석, 김민정, 김은 애쓰다.

6.15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측 당국 대표단이 40명으로 결정되었다고 통일부가 발표하다. 정동영 통일부장관을 단장으로 대표 9명과 임동원, 박재규,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등 자문단 6명, 그 외 지원단과 기자단 등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다. 북측 당국 대표는 김기남 조선로동당 비서(조평통 부위원장)를 단당으로 권호웅 남북장관급회담 북측단당 등 16명 대표와 2000년 남북정상회담에 참여했던 림동욱, 전금진, 김완수, 리종혁 등 8명을 자문위원으로 함께 하기로 하다.

광화문 교보문고앞에서 500여 시민사회단체 청년학생이 모인 가

운데 신효순, 심미선 6.13 자주평화촛불기념사업회(준)주회로 '고 신효순, 심미선 3주기 추모 및 반미촛불집회'가 열리다. '광야' 노래를 합창하고 대표들 헌화에 이어 천영세 민주노동당의원 등 추모사, 김종일 집행위원장 동두천 정신지체여성 압살사건 사례와 규탄발언 등이 있었고 2부에서는 청소년, 대학생, 평택주민들, 노정렬, 홍석천, 신건수 한청부의장 등의 규탄발언, 윤미진씨 등의 추모노래, 성조기를 불태우는 상징의식이 있었음

13

-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과거사법)개정안 마련과 관련 개정안 공동발의 의원 모임이 국회의원회관에서 있었음. 이영순(민주노동당), 정창례(열린우리당), 고진화(한나라당)의원 보좌관 등이 함께하여 개정안 내용 등 협의하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에서는 권오헌 공동대표와 박희영 사무처장이 함께하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범남본이 주관하여 '미군주둔 60년, 남북해외 반미 사진전 개막식'을 열다. 이 날 전시된 사진은 모두 94점(남측 55점, 북측 31점, 해외 등에서 보내옴)으로 미군의 야만적 학살 장면 등이 있었음. 라창순 명예의장의 개막사,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서경운 민가협 전상임의장, 노수희 전국연합 공동의장 등의 사진전의 의미와 미군학살만행규탄발언이 있었음. 이어 굿패 '영산마루'의 해원굿이 있었음. 전시회는 6.15까지 이어짐.

- 효창공원 백법기념관에서 통일부와 국정원에서 주관한 6.15대축전 대표단에 대한 방북교육이 진행되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지난 5월 운영위 결정에 따라 김호현 운영위원이 후원회를 대표하여 대축전에 참가하게됨.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이 주관하는 '6.15 5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가 신라호텔에서 열리다. 노무현 대통령은 축사에서 '남북대화가 북핵문제 해결에 기여토록해야한다'고 했으며 김대중 전대통령은 기조연설에서 평화공존, 평화교류, 평화통일 3원칙과 남북연합, 남북연방, 완전통일의 3단계 통일방안을 강조했고 북핵문제 해결에서는 북미사이에 핵포기와 안전보장을 동시에 옮겨야한다고 강조하다. 동티모르 사나나 구스마오 대통령, 천지첸 중국 전 부총리, 도널드 그래그 코리아 소사이어티 회장 등 특별연설도 있었음.

14

- 광화문 연린시민공원에서 평통사 등 6개 단체가 함께하는 '효순 미선 3주기에 즈음한 제69차 반미연합집회'를 열다. 주한미군범죄, 미군기지확장, 스텔스기 이동배치 등 우리민족의이익과 안보에 반하는 미군철거를 다시 강조하다.

- 평양에서 열리는 6.15민족통일대축전에 참가할 남측준비위 대표단이 인천공항을 떠나 서해 직항로로 평양 순안비행장에 도착, 북측준비위 안경호위원장 등 마중을 받고 고려호텔로 가서 해외 대표단과 호텔 직원들의 뜨거운 환영을 받다. 대표단은 만경대 학생소년궁전을 방문, 렴문학 총장의 안내로 소년학생들의 여러 활동과 공연을 참관하고 이어 천리마 동상에서부터 개막식이 열리는 김일성 경기장까지 6만여 시민의 환영을 받으며 2㎞를 행진하다. 한편 이 날 평양기상악화로 예정보다 인천공항을 늦게 떠난 남측 당국대표단은 6시 순안비행장에 도착, 장관급회담 북측단장인 권호웅 내각참사등 환영을 받고 백화원 초대소로 떠나 북측 당국대표단장인 김기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 등의 마중을 받다. 9시 김일성 경기장에서 남북해외대표단과 남북당국대표단 그리고 평양시민 100,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6.15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개막식'이 열리다. 남측의 김종수 공동대표와 북측의 김정호 부위원장, 해외준비위 림태광 위원의 공동사회로 안경호 북측준비위원장의 개막선언이 있었고 대형 단일기 입장과 계양, 축포 등으로 밤하늘을 수놓다. 안경호 북측준비위 위원장, 백낙청 남측준비위원장, 김수식 해외준비위 부위원장이 차례로 개막연설을 하다. 이어 양형섭 북측 명예위원장(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남측의 법장 명예위원장의 축사가 있었음. 개막식 행사가 끝나고 9시 50분부터 경축야회가 열려 북측예술단의 화려한 집단체조와 무도회를 펼치다.

15

- 국방부 앞에서 이라크 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 주최로 '윤광웅 국방장관의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발언 규탄기자회견'을 열다.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여는말,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 권상훈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간사,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등 규탄발언이 있었음.

- 권오헌 양심수후원회대표는 6.15공동선언발표5돌을 맞아 'EBS 김민웅의 월드센터'와 6.15공동선언 5돌을 맞는 의미와 과제에 대해 생방송 인터뷰하다.

-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6.15공동선언 남측준비위 주최로 '6.15 공동선언 5돌 기념식 및 통일음악회'를 열다. 참가단체 회원 등 7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김상근 공동대표의 기념사, 전농 서정길 부의장의 경과보고, 권오헌 고문의 정치연설, 민화협 대표의 평양 대축전에서 채택된 민족통일선언 낭독 등이 있었고 만세3창으로 기념식을 마침. 이어 통일음악회에서는 청소년단체 '희망, 록밴드

'크라잉넛', 겨레하나 합창단, 전교조노래패 '해웃음', 노래패 '우리나라', 안치환 등이 공연하다. 김희선, 정인태, 김민정, 김은, 권오헌 함께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남북해외대표단과 남북당국대표단이 함께하고 평양시민 6,0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주진구 북측준비위 위원, 이석태 남측준비위 공동대표, 최은복 해외준비위부위원장 등 공동사회로 '6.15공동선언 5돌 기념 민족통일대회'가 열리다. 안경호 북측준비위원장, 백낙청 남측준비위원장, 곽동의, 문동환 해외준비위 공동대표의 기조연설과 박순희 북측준비위 부위원장(조선여성동맹위원장), 정현백 남측준비위 공동대표가 정치연설을했고 마지막으로 '민족통일선언'을 채택하다. 민족통일선언은 ①우리민족끼리 힘을 합쳐자주적으로 조국통일의 역사적 위업 성취한다 ②6.15공동선언발표날을 '우리민족끼리의 날'(6.15공동선언발표의 날)로 정하고 공동으로 기념한다 ③당국사이, 민간사이 고동보조를 도모하고 연대를 강화하여 다방면적인 협조를 강화한다 ④온 민족이 단합된 힘으로 이땅에서 핵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평화로운 삶의 터전을 꾸려나간다 ⑤6.15공동위원회를가장 폭넓고 위력적인 통일애국운동기구로 강화 발전시켜나간다 –이어 4.25문화회관 2층 복도에 마련한 남북해외공동사진전을 관람하다. 이 사진전은 남북에서 각100점씩 출품했음. 공동사진전 관람을 마친 다음 남북해외대표단은 노동, 농민, 청년학생, 여성 등 12대 부문별 모임을 갖다. 교육부문모임은 효순, 미선이가 명예학생으로 있는 모란봉제1중학교를 방문했으며 여성부문은 조선민주여성동맹(위원장 박순희)청사를 방문하다.

7대종단은 각 종교별로 모임을 했고 법정스님은 북측 불교도연맹 관계자들과 대성산 광법사에서 합동법회를 열었고 한단연 이삼열 상임대표는 천도교 청우당(위원장 유미영)회관을 방문하다. 노동부문은 평양 평천지역의 전선을 생산하는 3.26공장을, 농민부문은 순안공항근처원화농장을, 청년학생은 청년중앙회관을 방문토론회를 열었고 통일연대 지역본부 등은쑥섬(전조선제정당 사회단체 연석회의 유적지)에서 북측대표들과 상봉모임을 갖다. 학술, 언론, 환경, 체육, 보건은 시민부문으로 묶어 인민문화궁전에서 상봉모임을 가졌으며 정치인 모임은 북측관계자와 상견례를 갖다. 한편 남북당국대표단은 오후 인민문화궁전에서 공동으로 6.15공동선언발표 5돌 기념 행사를 갖다. 정동영, 김기남 대표단장의 기념사, 북측 자문단을 대표하여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 남측 자문위원을 대표하여 임동원 세종재단 이사장의 축사가 있었음. 기념식을 마치고 평양 지하철 만수대 창작사를 관람한 뒤 청년중앙회관에서 공연되고 있는 북측 가극 '춘향전'을 민간대표단과 함께 관람하다.

16 ----------

민가협 572회 목요집회가 열렸음.

경기도 양주경찰서 앞에서 주한 미군의 대형 트럭에 의한 압사사건 진상규명 비상대책위원회 주최로 '미군 트럭 압사사건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다. 참가자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①경찰은 현장 재검증과 철저한 재수사로 진상을 규명하라 ②정부는 미측에 1차적 재판권 포기를 요청하고 미군범죄자를 우리 법정에 세워라 ③한미 당국은 이와 유사한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 대책을 세우라 ④불평등한 SOFA전면 개정하라'고 촉구하다.

6.15대축전 3일째를 맞아 남측, 해외 대표단 주석단은 만수대 의사당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예방하다. 그 밖에 남북해외 민간 대표단은 고 김일성 주석 생가만경대와 만수대 창작사 개선문 등을 참관하고 옥류관에서 냉면으로 점심을 먹다. 오후 3시부터는 류경 정주영 체육관에서 남북해외 대표들이 '우리'팀과 '하나'팀으로 나누어 배구, 럭비공 차며 달리기, 눈싸매고 소리듣고 답하기, 남녀가 공 등에 대고 달리기 등 체육유희시간을 갖다. 12,000여 평양시민들과 800여명 북측 응원단이 함께한 가운데 6시부터같은 자리에서 남북해외 민간대표단과 남북당국대표, 그리고 10,000여 시민이 함께한 가운데 대축전 3일간 행사를 모두 마치고 폐막식을 갖다. 남북해외대표 공동사회로 이용득 남측준비위 대표(한국노총 위원장), 양영동 해외준비위 부위원장(재중 조선인연합회 회장)의 폐막연설과 김성철 북측준비위 위원(교원동맹위원장). 백낙청 남측준비위 상임대표의 폐막사가 있었음. 이어 단일기를 내림으로 모두 마침. 이보다 앞서 남북당국대표단은 평안남도 강서군의 '강서세무덤'과 덕흥리 '무덤벽화' 등 구구려 문화유산을 답사하고 보통강변 안산원형식당에서 정동영 단장 주최로 북측대표단을 초청 오찬을 함께하다. 이어 남북해외 민간대표단과 남북당국대표들은 봉화예술극장에서 남측의 가극 '금강' 공연을 관람하다. 또한 이날 밤 남측당국대표단은 평양시 중구역에 있는 목련관으로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예방, 전체 면담과 정동영 단장의 단독면담이 있었음. 북측에서는 김기남 노동당 비서와 권호웅 내각참사, 리종혁 아태 부위원장이 배석하다. 면담에서 정동영 단장은 북핵문제와 관련 최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했고 김위원장은 '미국에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을 인정하고 존중하면 미국을 우방으로 대할 것'이라고 하다. 면담이 끝나고 김기남 북측단장이 주최하는 환송만찬이 있었고 양측단장의 만찬사 있었음.

17

중학동 일본대사관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위원회, 독도주권수호 역사왜곡중단 친일잔재청산 대학생운동본부, 일본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반대 100만인 서명운동본부, 통일연대, 한총련, 한청, 전국민중연대 등 공동으로 '고이즈미 방한에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열다. 주종환 민화련 대표의 여는말, 황규범 한청 대회협력위원장과 대학생운동본부 조정원 실천단장의 결의발언,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의 성명서 낭독이 있었음. 마지막으로 '독도영유권침탈', '군국주의부활', '유엔안보진출', '역사왜곡' 이라고 적힌 플라스틱 바가지를 밟아 박살내는 상징의식을 갖다.

6.15공동선언—민족대축전에 참가한 남측대표단은 오전에 평양시 력포구역에 있는 동명왕릉과 평양시내 주체사상탑을 참관한 뒤 점심식사를 하고 순안비행장을 떠나 오후 5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소속 회원과 단체의 마중을 받다. 양심수후원회에서는 모성룡, 나정옥, 서미라, 권오헌이 김호현 대표를 마중하다.

6.15대축전에 당국대표단장으로 참석한 정동영 통일부장관이 이날 11시부터 4시간 50분동안 노무현 대통령의 특사자격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예방, 면담과 오찬을 함께하다. 정단장은 서울에 돌아와 기자회견을 통해서 김 국방위원장과 정치, 군사, 인도주의 문제와 핵문제 등에 관해 폭넓고 깊이 있는 대화를 했다고 밝히다.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①특사자격으로 ②노무현 대통령의 구두메세지를 전달했고 ③핵문제를 비롯한 정치, 경제, 군사, 인도주의 현안을 토의 ④김정일 국방위원장은 핵문제와 관련 · 조선반도 비핵화선언은 유효하고 김일성주석의 유훈이다 · 우리는 6자회담을 한번도 포기하거나 거부한 바없다 · 미국이 우리를 업수이보기 때문에 맞선 것이다 · 상대방이 우리를 인정하고 존중하려는 것이 확고하다면 7월중이라도 나올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는 미국과 더 협의해 보아야겠다 · 8.15를 맞아 이산가족상봉 재개제안을 받아드린다 8.15대축전에 비중있는 정부대표단을 파견하겠다 · 장관급회담에서 논의되겠지만 장성급 군사회담을 열어 서해지역에서의 긴장을 해소하겠다— 라고 밝히다.

탑골공원 앞에서 독도주권수호 역사왜곡중단 친일잔재청산 대학생운동본부 주최로 '고이즈미 방한반대 범국민대회'를 열다. 이주희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위원장, 김진만 중앙대 안성캠퍼스 총학생회장, 조정원 학생운동본부 실천단장 등 결의발언이 있었고 일본대사관앞까지 행진, 항의서한을 전달하다.

18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후원회가 주관하고 민주노총, 한국노총, 한청 등이 협찬한 '제3회 6.15마라톤대회'가 여의도 한강 시민공원에서 열리다. 6.15㎞와 10㎞를 뛰는 두 팀으로 나누어 1,000여명이 6.15공동선언의 의미를 되새기고 자주통일을 앞당기겠다는 의지로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힘찬 주생을 다하다. 제1회때부터 적극 참여하고 있는 양심수후원회는 23명이 참여하여 6.15㎞를 완주하여 단체상을 받았음. 김희선, 강주혁, 장재영, 변의숙,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이용준, 송창학, 주경임, 한찬욱, 이승미 이재필, 조명희, 임미영, 김재현, 신현부, 김영철, 김은, 김인해, 권오헌 함께

19

양심수후원회 산행의 날. 1,4호선이 겹치는 금정역에 모여 모성룡, 이현근 회원이 가져온 차량으로 수리산 등산로입구까지 이동 모두 35명이 산행을 시작하다. 사교의 광장—노랑바위—쉬어가는 숲—태을봉(수리산 최고봉 474m)에 올라 기념사진을 찍다. 안양, 군포, 산본일대가다 내려다 보이다. 다시 100m쯤 산을 내려와 마련해온 점심을 먹고 수리산 능선을 우회하여 산본 8단지 쪽으로 내려오는 '임간교실'까지 내려오다. 이 곳에서 약속한 리영희 교수와 만나게 되고 정상에서 안양쪽으로 내려갔던 회원들과 집에서 늦게 떠난 회원까지 모두 만나다. 야외 강의실처럼 꾸며진 이 곳엣 먼저 6.15—대축전에 다녀온 김호현 운영위원의 참가 보고를 듣고 이어 리영희 교수님의 귀한 말씀을 듣다. 선생님께서 두 번에 걸친 평양 다녀오신 이야기, 이북이 지향하는 자주노선, 6.15공동선언에 걸림돌이 되고있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본질,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할 길 등 약 50분정도 특강을 하시다. 마치고 다시 산을 조금 더 내려와 '시가 있는 숲'에서 막걸리를 준비하여 모두 둘러앉아 재미있는 뒤풀이 시간을 갖다. 이용준, 이득형, 김길자, 신현익 회원 등 양심수후원회 가수(?)들의 명창에 질세라 리영희 교수의 비장의 곡을 발표하시기도 했음. 류종인, 유인호, 김재선, 신현익, 김호현, 서미라, 편상범, 김재현, 김혜순, 이현근, 이상화, 이성재, 김길자, 김민경, 이용준, 송창학, 주경임, 송인석, 송인영, 조희영, 나순석, 나민정, 나민지, 박철민, 이병건, 이호현, 김영철, 이윤주, 조명희, 모성룡, 이해숙, 이경희, 신현부, 이득형, 김인해, 김은. 권오헌 등 함께했음.

20

국회 본관 기자회견장에서 이영순(민주노동당), 임종인, 정창태(열린우리당), 원희룡, 고진화(한나라당), 손봉숙(민주당)의원 등 4당 의원이 '진실규명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 개정안 발

의 기자회견' 을 열다. 올바른 과거청산을 위한 범국민 위원회 권오헌 공동대표 함께하여 개정의 당위성 강조하다.

여의도 국회 앞에서 올바른 과거청산–범국민위원회 주최로 '누더기 과거사법 개정을 위한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를 열다. 박석운 공동집행위원장 사회로 오종렬, 권오헌 공동대표, 이영순 의원 등 개정 관철 결의 발언이 있었고 조순덕 공동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이 날부터 개정안 발의 때까지 출퇴근 형식 농성에 들어가다.

전국91개 시,군 농민 3만여명이 쌀협상 무효, 국회비준저지를 내걸고 총파업에 들어가다. 국내 쌀 생산의 대부분이 유통되는 전국미곡종합처리장(RPC) 총 313개소 중 244개소가동맹파업에 들어가다. 전국농민회 총연맹은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앞에서 '쌀 협상 무효, 국회비준 저지를 위한 6.20농민 총파업 결의대회' 를 열다. 문경식 의장의 대회사, 한국 중도매인 연합회 이성관 서울지회장, 농업기반공사노조 이민수 수석부위원장, 정광훈 민중연대 상임대표, 농협노조 선재식 위원장,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대표 등의 연대발언, 서정길 전농 부의장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음. 참가자들은 '쌀 개방' 과 '국회비준동의' 등 쌀독을 깨뜨리는 상징의식을 갖다. 한편 이 날 전농, 한농연, 전여농, 가톨릭 농민회 등 농민단체로 구성된 쌀 협상 국회비준저지 비상대책위도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단식농성에 들어가다.

운니동 일본문화원에 '과거사 사죄없는 고이즈미의 후안무치한 방한을 규탄하는 청년학생 15명이 기습적으로 진입, 3층에서 유인물을 뿌리고 구호를 외치다가 긴급출동한 경찰에 폭력으로 강제연행, 남부, 구로 강서 경찰서에 격리유치 조사를 받다. 경찰은 대부분 학생들에 주먹과 군화발, 곤봉으로 폭행을 하고 폭언을 했으며 일부 학생은 코피가 터져나오는 등 전경버스에서도 폭행폭언이 이어졌다.

21

제15차 남북장관급 회담에 참가할 북측 권호웅 단장 등 대표단이 고려항공편으로 서해 직항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 재경부 박병원 차관등 영접을 받고 회담장소인 워커힐 호텔에 도착, 정동영 남측단장의 마중을 받다. 남북대표단은 호텔 '비스타 홀' 에서 만찬을 갖다.

22

내자동 서울시경찰청 앞에서 통일연대, 민중연대 공동주최로 '일본문화원 기습시위 경찰의 폭력연행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사회자의 폭력연행에 대한 경과보고에 이어 서울대 03학번 임대환 학생의 사례보고가 있었고 권오헌 양심수후원회장,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규탄발언과 이규재 범남본 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용산 국방부앞에서 평통사 주최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제로 한 제3차 한미 안보전략회의(SPI) 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유영재 평통사 미군문제팀장과 오혜란 인천 평통사 미군문제팀 국장의 규탄발언과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마치고 권오헌, 김규철, 오혜란 등 항의서한 국방부 민원실에 접수시키다.

세실 레스토랑에서 '고 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대책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동, 시민 사회단체 비상대표자회의' 를 열다. 민주노총, 한국노총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은 ①김태환 열사 살인사건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 규명, 책임자 처벌과 배상 및 보상책 강구 ②비정규법안 강행처리 즉각 중단–국가인권위가 제시한 기준을 토대로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 입법추진 ③최저임금인상 ④김대환 노동부장관 해임 촉구 등 6개항을 합의 발표하다.

23

탑골공원 앞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석방을 위한 573회 민가협 목요집회가 열리다.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권오헌 공동의장의 일문화원 기습시위학생 폭력강제연행규탄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규탄발언, 이동수 전철연 집행간부의 오산지역 폭력강제해산과 무더기 구속규탄발언, 조순덕 상임의장의 6.15대축전 참가보고 등이 있었음.

제15차 남북장관급회담 마지막으로 전체 회의를 열고 아래와 같은 12개항에 대한 합의보도문을 발표하다. ①8.15행사에 북측 당국대표단 파견 ②핵문제 평화적 해결 ③8.26일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행사 및 화상상봉 실시 ④8월중 제6차 적십자회담 개최 ⑤을사조약 무효화선언 및 북관대첩비 반환, 안중근 의사 유해 발굴 공동추진 ⑥제3차 장성급회담 백두산에서 개최 ⑦경추위 산하에 수산협력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⑧남북농업협력위원회 구성 및 7월중 첫 회의 ⑨북측 민간 선박의 제주해협 통과 ⑩북측에 식량지원 ⑪제10차 경추위 서울에서 7.9일부터 개최 ⑫제16차 장관급회담 9.13–16일까지 백두산에서 개최 등이다.

24

광화문 미 대사관앞에서 통일연대 주최로 '대북인권공세로 남북화해 가로막는 미국 보수기독교인 방한규탄 기자회견' 을 열다. 여

는말 한상렬 상임의장, 박덕신 목사, 송효원 한총련의장의 규탄발언과이규재 범남본의장의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었음.

- 비전향장기수 송환추진위원회 상임대표자 회의를 종로 식당에서 열다. 회의에서는 2005년 6월 현재 부채 700,000원을 5개 단체에서 140,000원씩 부담하여 갚기로 하다.

- 통일연대와 전국민중연대는 인사동 문화마당에서 '미국의 한반도 전쟁계획 폐기 촉구 범국민서명운동선포식'을 갖고 이날부터 서명운동에 들어가다. 선포식에서는 · 작전계획 5027, 5029 즉각폐기 · 평택기지확장이전, 미군재배치, 첨단무기증강 등 전쟁로비 즉각중단 · 대북적재정책 폐기 한반도 평화 실현을 위한 군축회담 촉구 · 전시작전권 반환, 한미연합사해체, 주한미군철수 등을 주장하다.

25 ----------

- 옴시롱 감시롱은 25~26일동안 '하늘과 맞닿은 說話의 바다, 역사가깃든 땅' 이란주제로 강원도 삼척 일대를 답사하는 제42차 정기기행을 다녀오다. 25일 아침 양재역을 떠나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동해고속도로로 강릉-동해시를 거쳐 삼척 못미쳐 추암해수욕장의 촛대바위 등 절경을 답사하고 이어 삼척시 오십천 절벽위에 세워진 '죽서루'에 올라 자연과 인공이 하나되는 빼어난 자연미를 둘러보다. 이어 신기면 대이리 소재 '환선굴'을 답사하다. 천연기념물 178호로 지정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석회동굴이기도 한이 환선굴은 총연장 8km이었으나 일반인들은 1.6km만 답사할 수 있음. 각종 기형휴석, 종유석, 종유관, 동굴 진주, 동굴 산호 등이 있고 동굴안에 시내가 흐르고 광장이 있고 꼬리치리도 룡용과 환선장님딱정벌레 등 이 동굴에서만 발견된 4종을 비롯한 47종의 동굴 동물들이 있다고 하다. 이어 신기면 옛 초등학교 분교였고지금은 폐교되어 들꽃학교로 운영되고 있는 곳에서 저녁식사를 하다. 저녁에는 하원호 교수의 '송시열과 허목을 중심으로 본 조선붕당사' 강의를 듣다. 26일은 삼척지역 38번국도를 따라 백두대간 깊숙이 오십천을 따라 올라가다 도계읍 심포리에 있는 '미인폭포'를 찾다. 우보산 계곡에서 발원하는 계곡물은 갑자기 협곡을 이루는 절벽으로 떨어지는, 높이 50여m의 폭포를 이루고 있음. 이 일대는 2700여m의 협곡으로 이루어져 삼척판 그랜드캐년을 연상하게 한다. 굵은 자갈, 모래, 갯벌 흙이 굳어져 생성된 암반들은 수억년 전 바다 밑 흙이 융기해서 이루어진 역암, 사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어 다시 427번 지방도로를 따라가다 도계급 신리에 있는 나무껍질로 지붕을 덮은 너와집을 참관하다. 1975년 이 너와집 등 민족유물 10여점을 중요 민속자료 33호로 지정되어 있었음. 다시 416번 지방도로를 따라 동해안으로 가는 도중 '가곡천'이 흐르는 '동활계곡'의 절경을 보게되다. 삼척시 원덕읍에 이르러 동해를 끼고 다시 북상(국도 7번도로), 길남리 '해신당공원'에 이르다. 해초를 뜯기 위해 바다에 나갔다 거센 파도로 결혼을 약속한 처녀가 죽고나서 이 고장에선 고기가 잡히지 않아 주민들은 죽은 처녀의 영혼을 달래기 위해 해신당을 짓고 실물크기의 남근을 여러 개 만들어 제사를 지냈는데 그 뒤에는 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설화가 있다고 하다. 이 일대는 이 해신당을 비롯하여 수많은 남근장승이 유명한 조각가의 작품으로 세워져 있고 어촌 민속전시관 성민속관 등이 있었음. 답사의 마지막은 삼척시 육향산 산림에 있는 척주동해비(陟州東海碑)를 답사하고 기행 모두를 마침

- 통일연대와 민중연대는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반전 월례공동행동'집회를 열고 미국의 대북적대정책과 전쟁책동 그리고 미군기지확장시도를 규탄하고 주한미군철수를 촉구하다.

26 ----------

- 이라크에서 희생당한 고 김선일씨 추모1주기를 맞아 이라크파병반대 비상국민행동은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반전행동집회'를 열고 자이툰 부대의 즉각 철수를 촉구하다. 민주노동당 김혜경 대표, 김광일 '다함께' 운영위원 등 결의발언과 전국학생연대회의 정화 의장과 서총련 김노진 의장이 | 결의문을 함께 읽다. 참가자들은파병연장반대 서명운동을 벌였으며 광화문까지 행진하다.

27 ----------

- 오랫동안 빈민운동을 하면서 양심수로 옥고를 치루기도 했던 박원주(전빈련 인천지역의장)회원님께서 비전향장기수들이 부담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집을 마련하여 입주희망자가 있는지를 문의해 와 미아리에 계시면서 주거비 부담이 많아 애쓰시는 박희성선생님의 입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박희성 선생님과 박원주 회원님 댁을 찾아뵈었음. 집은 매우 좋았고 박희성 선생님께서 결심을 하면 7월 10일경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보였음.

- 양심수후원회 제17차년도 제2차 운영위원회를 서초동 이기욱 부회장님 사무실(법무법인 창조)에서 열다. 활동보고, 회계보고에 이어 회비확보문제(cms), 박희성선생님 주거문제, 광복절 양심수사면 촉구문제, 양심적병역거부와 대체복무제문제, 양심수후원회 수련회, 운영위 날짜를 이북영화보기날로 정하는 문제 등 논의했음.

- 전국농민회총연맹과 한국대학총학생회 연합은 연세대에서 2005년 '우리농업지키는 여름농촌활동발대식'을 갖고 이날부터 120개 대학 15,000여명이 9박 10일간 농촌활동에 들어가다. 문경식 전농 의장은 학생들의 농활에 감사와 격려말을 했고 송효원 한총련 의

장은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조국통일과 미군철수에 대한 이야기를 농민들과 함께 나누면서 힘껏 일하겠다고 다짐하다.

- 광화문 교보문고 앞에서 평택주민들이 미군기지 평택이전을 막고 옥토를 지키기 위해 촛불을 밝힌지 300일을 맞아 평택주민과 시민사회단체 성원 300여명이 모여 '촛불시위 300일 기념대회'를 열다. 팽성읍 모두2리 이상열 이장, 평택지역 학생농활대 김민아 대장의 결의발언 등이 있었고 모두리가 고향인 가수 정태춘씨, 인천공대생과 경기민청회원들의 율동공연, 평택대책위 실천단의 문예공연이 있었음.

28

- 문학산 패트리어트 미사일배치계획 철회 및 시민공원 만들기 범시민대책위원회는 용산 국방부앞에서 패트리어트 배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국방부는 남북대결이란 구시대적 시각에서 벗어나 불필요한 차기유도무기(SAM-X)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고 촉구하다.

-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은 국방부앞에서 제47차 평화군축집회를 열다. 참가자들은 결의문에서 '정부는 미국에 대한 굴종적 자세를 버리고 북에 대한 안전보장과 정상적 외교관계를 수립하도록 미국에 촉구할 것과 미국의 주도아래 전개되는 대북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천문학적인 무기증강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고 촉구하다.

- 제16회 민족민주열사 희생자 범국민 추모제 행사위원회 주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주관으로 '올바른 민주화운동 명예회복과 정신계승사업의 역사적 의의와 과제'란 주제로 제16회 민주화운동정신계승 학술토론회를 열다. 권오헌 계승연대 상임공동대표의 인사말에이어 이덕우 계승연대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장 사회로 이영재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 위원회 전문위원 등의 3명의 발제, 정대연 전국민중연대 정책위원장 등 3명의 지정토론이 있었음. 이보다 앞서 민주열사, 의인 독서감상문 시상식이 있었음. 구의중학교 이정호, 부명고등학교 김춘섭, 인헌고등학교 한송이 등 세 학생이 시상.

29

- 양심수후원회 '후원회소식' 고현희 편집위원은 한평생을 항일운동과 자주통일운동에 헌신해오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이종린 명예의장의 살아오신 말씀을 듣고 19번이나 연행되고 구속된 투쟁사를 취재하다.

-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평택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 대표자회의가 열리다. 회의에서는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한반도 전쟁반대 7.10평화대행진'에 각계각층이 동참을 촉구하는 호소문을 채택하고 잇달아 기자회견을 통해 대국민참여를 호소하다. 문정현, 김지태, 문경식, 정광훈 등 상임공동대표 등의 결의발언이 있었음.

- 대한불교 조계종 민족공동체 추진본부는 창립5돌을 맞아 한국일보사 송현클럽에서 '창립5돌기념 법요식'을 열고 6.15공동선언 이행에 불교계가 앞장설 것을 다짐하다. 총무원장 법장스님 등 격려사 민추본부장 명진스님의 기념사, 한상렬 통일연대 상임대표의 축사가 있었고 북측 조선불교도연맹 중앙위원회에서도 축사를 보내오다.

30

- 탑골공원앞에서 민가협 574회 목요집회가 열리다. 조순덕 상임의장의 여는말, 임기란 전 상임의장 등 광복절 양심수사면 촉구발언이 있었음.

- 계승연대 회의실에서 민주화운동정신계승 국민연대 36차 상임대표자 회의를 열다. 과거사법 관련 입법 투쟁활동보고, 16회 민족민주열사 희생 범국민추모제 등 활동보고에 이어 논의안건으로 · 명예회복 보상심의위원회의 열사, 희생자 차별에 대한 대응문제 ?민족민주열사 묘역 및 민주화운동계승 사업관 건립을 위한 범국민추진위(민건추) 준비모임 결성에 관한 문제 등 논의하다.

-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영등포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노동정책에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며 현 노동정책 기조의 전면수정을 요구하다. 또한 양 노총은 '정부여당의 · 비정규직법 강행 처리시도 · 한국노총 충주지부장 사망사고 대응 · 일방적인 최저임금 결정 등을 ' 노정관계의 파탄'으로 규정.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원덕 청와대 사회정책수석의 퇴진을 요구하는 대국민서명운동을 벌이기도 하다.